

觀光釜山

Busan Tourism News

Vol.02 11
2010. November



釜山廣域市觀光協會
BUSAN TOURISM ASSOCIATION
<http://www.bta.or.kr>

바다를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즐거움!

보물처럼 바다 곳곳에 숨겨진 진정한 바다의 아름다움을 느낄수 있는 방법은 티파니21 선상에서 직접 바다를 느끼는 것입니다.
가족, 연인과 함께 아름다운 해양도시 부산의 진정한 클라이막스를 느껴보세요!



Cookies tour
15:30~17:00

바다 위에서 전하는
사랑의 언어
Dinner tour
19:00~21:00

Lunch tour
12:00~14:00

Night tour
22:00~00:00

선상파티크루즈 **TIFFANY 21** BUSAN

예약문의 **1577-7721** 전문상담원 연결
743-2500

COURSE 주간 : 동백섬(누리마루) - 해운대 - 오륙도 - 이기대 - 광안대교 - 동백섬
야간 : 동백섬(누리마루) - 해운대 - 광안대교 - 동백섬



바다위의 품격높은 여유
최고급 요리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품격높은 휴식과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세미나&연회
기업체 세미나, 워크샵, 결혼식, 회갑연 등 품격높은 행사를 약속드립니다.



영화같은 감동적인 이벤트
선상파티, 해맞이, 달맞이, 불꽃놀이 등 잊지 못할 감동적인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부산의 상징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동백호
1688-3353



30년 전통의 부산대표 유람선
오륙도 왕복 코스, 광안대교 야경 코스

부산8경을 한번에 누릴 수 있는
카멜리아
1688-0012



부산 유일의 편도 유람선
해운대 - 부산대교 교통수단 가능



HANAT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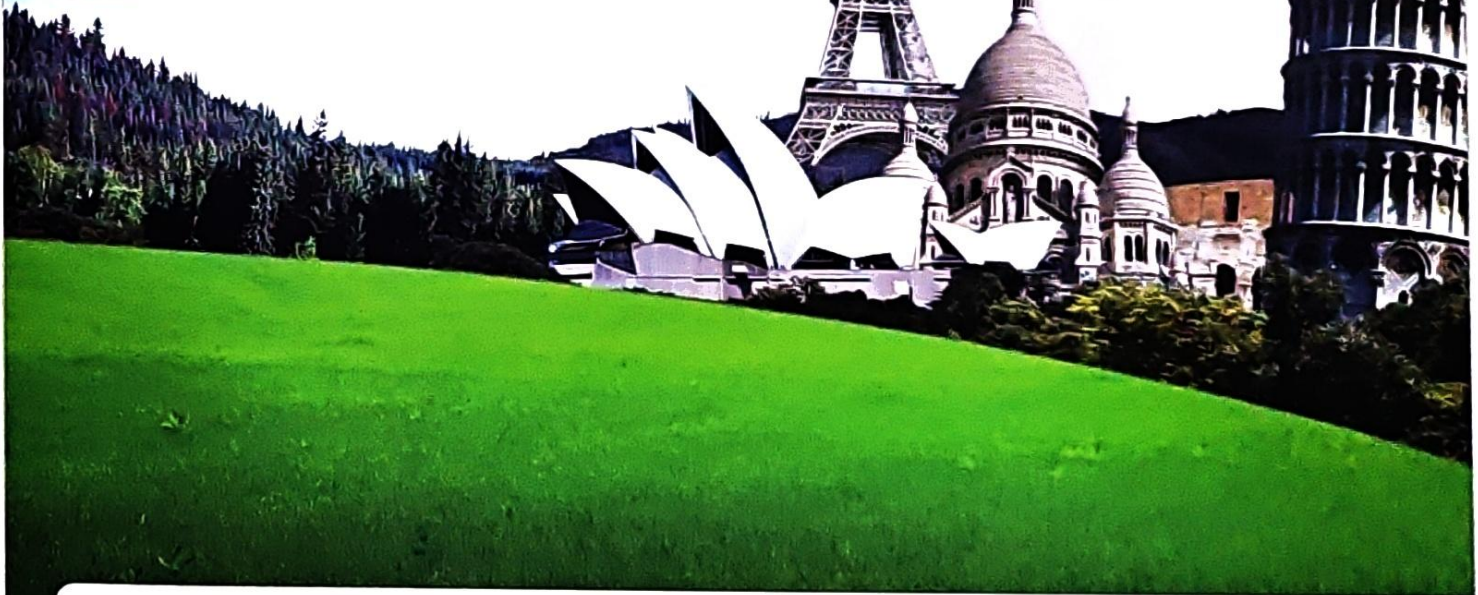
모두투어 지정 협력업체



여유로운 여행!
이제 태평양관광에서
시작하십시오.



대표이사 송 세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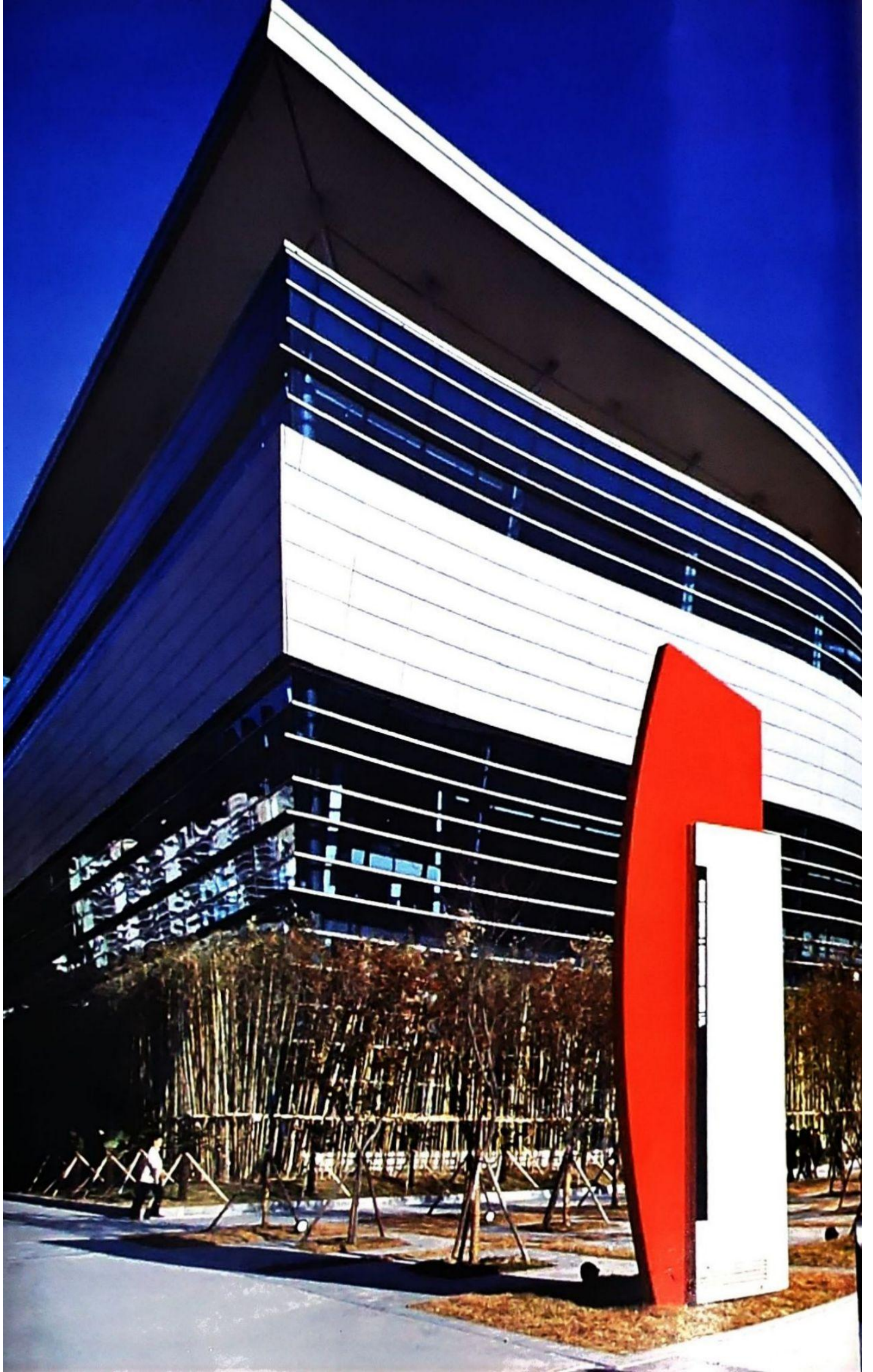
전세계 여행상품 안내

해외여행 · 국내관광 · 항공권 · 골프투어 · 신혼여행 · 관광버스



태평양관광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43-16(YMCA옆)
T.051)463-0888(代) F.463-0890
<http://www.tpytou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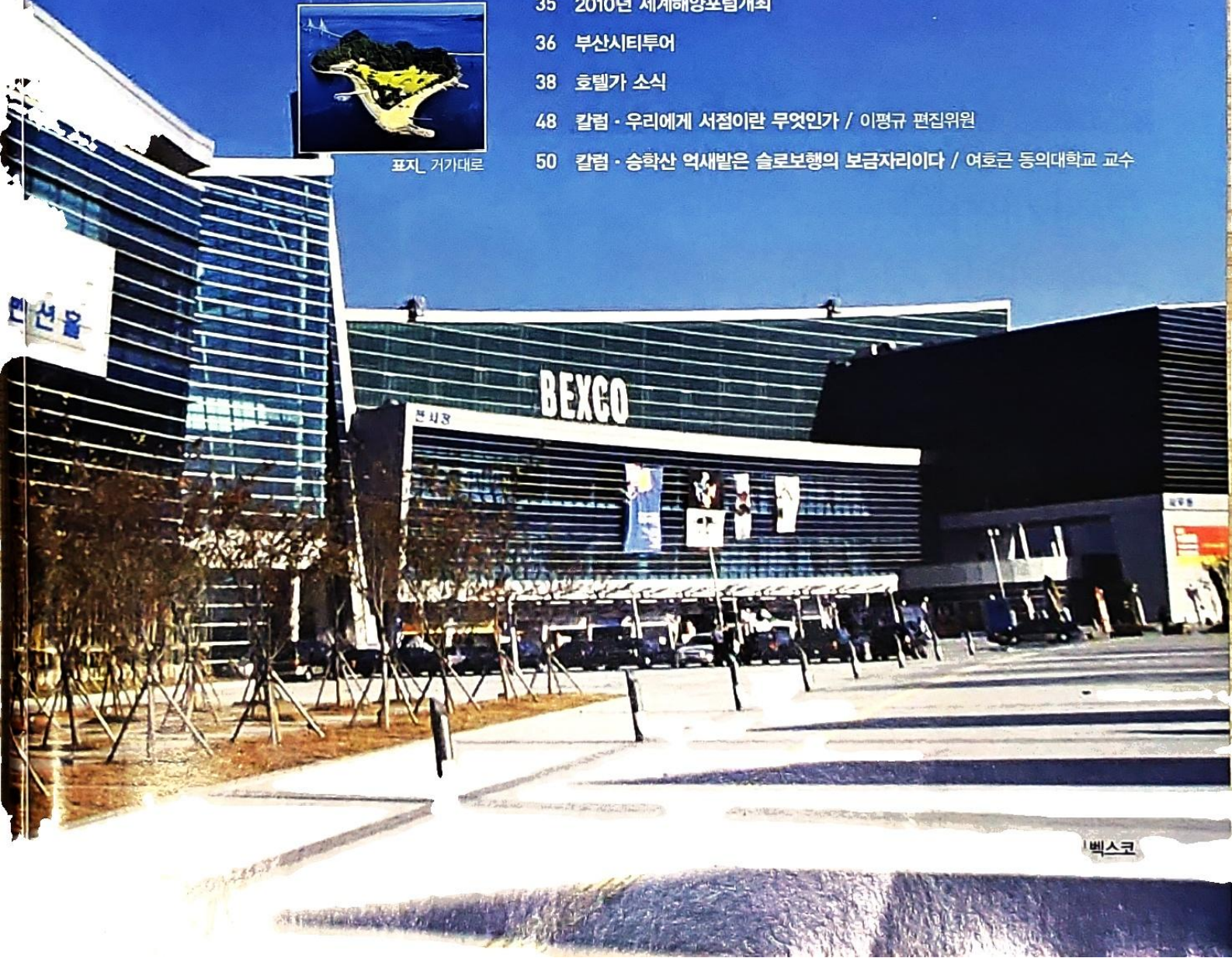
발행·편집인 이근후
 편집위원 손해식, 이평규, 김종규, 이해원, 김봉오
 편집국장 박성하
 취재기자 이효영 (김대현, 이민지 객원기자)
 발행일 2010년 11월 20일
 등록일 2010년 9월 27일
 등록번호 부산등라 00009
 발행처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_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569-2
 TEL. (051)463-3111, 463-3080 FAX. (051)463-0004
 편집실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870-95 나산리초 202
 TEL. (051)206-7500 FAX. (051)205-7767
 E-mail. bijbusan@hanamil.net
 편집·디자인 브문디자인 (051)469-3563

※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부산관광 발행처의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매문)



표지 거기대로

- 06 부산 사하구 관광개발 청사진
- 08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 감천2동
- 11 부산의료계 글로벌 마케팅
- 16 부산 KTX완전 개통, 종합대책 추진
- 21 보수동 책방골목 탐방기
- 24 티파니21, 다양한 연말행사 마련
- 26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TOTATOGA)' 이야기
- 28 범어사 템플스테이
- 32 테즈락 센트럴베이 크루즈 '누리마루호' 바다기행
- 35 2010년 세계해양포럼개최
- 36 부산시티투어
- 38 호텔가 소식
- 48 칼럼 - 우리에게 서점이란 무엇인가 / 이평규 편집위원
- 50 칼럼 - 승학산 역사발은 슬로보행의 보금자리이다 / 여호근 동의대학교 교수





부산사하구 관광개발 청사진



감천2동 문화마을에 찾아온 관광객들



다대포 품의 낙조문수

서부산권 개발이란 시대적 배경을 가진 부산 사하구는 동부산권 관광개발사업에 대응한 서부산권 관광개발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와 해양수도 부산을 대표하는 세계 수준의 해양관광 벨트를 조성한다는 비전아래 다양한 계층을 수용할 수 있는 차별성 높은 4계절형 종합해양 휴양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양 관광지에 도입할 각종시설은 환경과 공생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환경 훼손에 따른 경감조치 방안을 마련하거나 환경 창조형 해양관광 개발의 모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하구는 해양관광테마파크의 조성이란 대전제아래 을숙도 생태공원, 다대포항 인근의 물운대, 다대포 해수욕장과 연계한 탐조관광과 낙조관광의 명소화 등으로 서부산권을 핵심 해양관광 테마파크로 면모일신 함으로써 국내해양리조트의 선도적 위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사하관광의 미래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일로매진중인 이경훈 사하구청장과 가진 인터뷰를 다음에 소개한다.

**이경훈 구청장과의 인터뷰

사하구 중장기 관광기반 조성계획을..

핵심 축은 생태와 해양입니다.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이 출발점입니다. 을숙도 생태공원은 2016년까지 283만㎡에 965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습지공원, 자유이용시설, 보호구역의 세 부분으로 진행됩니다.

을숙도에서 다대포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강변대로는 2013년까지 도로를 확장하고 친수공간으로 조성합니다. 다대포 낙조는 전국에서 유명하지만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강변대로에서 걷고 자전거를 타며 차를 세우고 낙조를 볼 수 있도록 전망대와 휴식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다대포해수욕장은 연안정비사업이 2014년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가 지난 해 완공돼 수백만 명이 방문했고 언론에서도 세계 최대 분수로 크게 다루었습니다. 현재 방사림, 생태담방로, 해수천, 친수광장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장기적으로는 다대동 성장기업과 한진중공업 부지에 해양스포츠시설, 컨벤션시설, 극장 등을 유치해 다대포해수욕장 제1사장을 복원해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사하구 해양관광지 조성계획을..

다대포해수욕장을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다대포해수욕장은 해양레포츠 마니아들 사이에 대형언과 보드를 결합한 카이트보딩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을숙도는 윈드서핑을 즐기기에 알맞습니다. 각종 해양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 아카데미 활성화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가 들어서면서 거울을 제외하고는 관광객들이 다대포해수욕장을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까지 완성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입니다.

사하구에는 하단포구, 장림포구, 흥티포구 등 포구가 유난히 많습니다. 포구를 복원해 이촌체험 관광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변공원을 조성해 친수공간을 만들고 포구 인근의 공장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으로 관광벨트를 만들 계획입니다.

사하구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문화도시는 사하구의 구정목표 창조도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사람이 물리려면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이 재미있어야 하고 도시의 특징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완공한 감천동 미로미로 골목길 프로젝트는 문화마을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작가들과 예술작품을 설치하고 벽화도 그리며

이경훈 사하구청장

- 부산광역시 정무부시장
-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부산광역시 APEC준비단장
- 부산광역시 경제진흥국장, 환경국장, 기획관
-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 교부세과 사무관



산동네의 특징을 그대로 살린 공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관광객들이 이 마을에서 예술작품을 보고 만들며 돈을 쓰고 잠도 자도록 만들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지역 역시 마을의 정체성을 살리는 작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외래 관광객 유치 증대 방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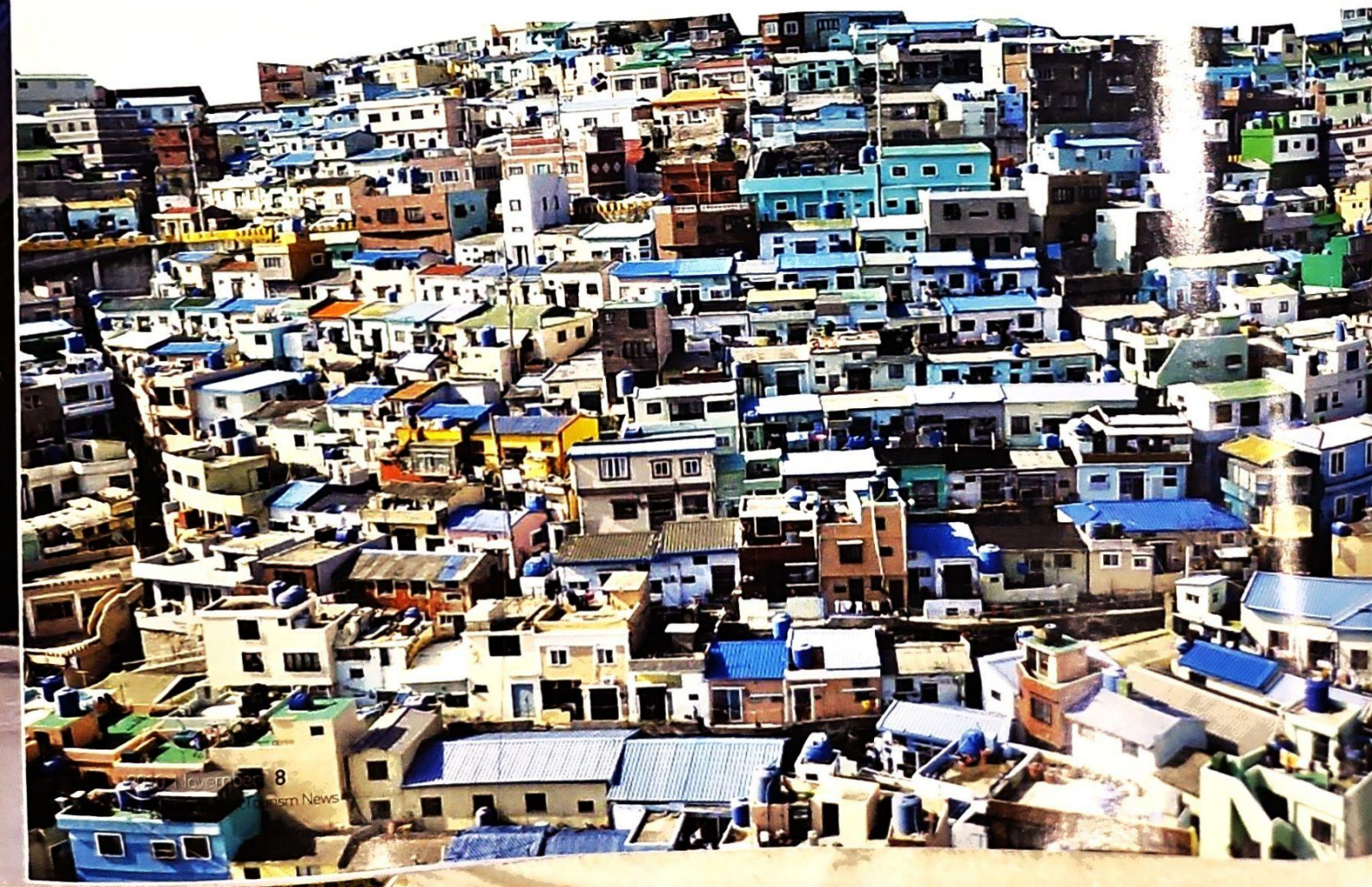
관광시설이나 역사자원을 둘러보던 관광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에 이야기를 붙여 재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토리텔링이 중요시되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하구에는 숨어있는 자원들이 많지만 제대로 알려져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콘텐츠 발굴과 스토리텔링 제작을 통해 다양한 홍보자료를 만들 계획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거가대교 개통 시 경남 사람들이 사하구와 해운대구로 이사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부산시와 거제시에 있는 이행업체를 초대해 관광실명회를 개최하고 관광협회, 여행사 등을 방문해 관광세일즈에 나설 계획입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관광홍보 책자가 아니라 사하의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하문화관광투어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하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산시티투어비스의 을숙도 자연생태코스 활성화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대담_손해식 편집위원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
감천2동 문화마을
미로미로美路迷路 골목길 프로젝트



감천2동 문화마을 조성사업

산복도로변에 형성된 특색 있는 주거공간을 환용하여 주민생활과 연계시켜,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민 체감형 창조공간으로 개발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문화·관광 명품지역으로 가꾸어 나가는 마을이 있어 세간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부산시 사하구 감천2동 태극마을이 바로 그 한 장이다. 이 마을은 2009년에 부산시 사하구, 감천2동 주민대표,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등 3개 협의체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마을 미술 프로젝트에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 조성계획을 신청하여 당당히 당선되었다. 이에 따라 '달콤한 민들레의 속삭임' 등 공간조형작품 10개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거국적 화제를 낳았다.

다대포 무지개 공단 내에 있는 '아트팩토리'는 서봉리사이클링(주)에서 지원한 1,000여 평의 건물에 25명의 작가들이 거주하면서 창작활동을 하는 공장형 예술촌이다.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은 지난해 사하구 감천2동 태극마을 주민들과 문화 콘텐츠를 통해 동네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사하구와 태극마을 주민,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는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도심 재생을 위한 하나의 이상형을 만들어 나갔다. 그러던 중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09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에 아트팩토리가 응모한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가 당선되면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10년 전 인구가 3만 명에 달했던 감천2동의 현재 인구는 1만 300명 정도다. 인근 초등학교는 한 때 1,000명 수준에서 현재는 200명 선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4,000여 가구 가운데 빈 집이 270가구로 도시의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위기에 처한 동네다. 6·25동란 후인 1956년부터 태극도 교인들이 집단 이주해 형성된 마을로 1958년 감천 2동으로 분리됐다. 이 동네는 천마산과 옥녀봉 사이의 골짜기에 U자 형태로 형성돼 있다. 인근 산동네와는 달리 특유의 가로형 골목구조와 계단식 마을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동네는 남쪽의 감천항을 바라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형이다. 동네의 모든 골목길은 사동팔달이다.

태극마을에서는 현재 12개의 공공미술 작품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10점의 조형물이 설치됐다.

① 신무경 작가의 <달콤한 민들레의 속삭임>, ② 전영진 작가의 <사람 그리고 새>, ③ 박경석 작가의 <꿈꾸는 물고기>, ④ 백성근 작가의 <Good-Morning>, ⑤ 안재국 작가의 <희망의 노래를 담은 풍선>, ⑥ 안승학 작가의 <가을 여행>, ⑦ 박은생 작가의 <내 마음을 풍선에 담아>, ⑧ 하영주 작가의 <우리가 가꾸는 꽃길>, ⑨ 박인진 작가의 <하늘 계단>, ⑩ 문병탁 작가의 <무지개가 피어나는 마을> 등이 그것이다.

조형설치 공공미술 작품이 지난해의 주류였다면, 올해는 좀 더 새로운 형식의 '빈집 프로젝트'와 '골목길 프로젝트'가 주류가 되고 있다. 치음 프로젝트를 시작한 때는 조형물 설치와 같은 단순한 문화 콘텐츠를 적용하는 도시재생 방식을 생각했지만, 지금은 훨씬 더 다양한 일이 끊임없이 동네 공동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손해식 편집위원



미로미로 골목길 프로젝트

감천2동 대극마을의 '미로미로(美路迷路)' 골목길 프로젝트는 1억 2천만을 투입하여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완성할 목표로 추진되었던 '테마가 있는 빈집 프로젝트'와 '골목길 재생 프로젝트'를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곳은 천마산과 옥녀봉을 낀 골짜기에 1950년대 한국전쟁직후 태극도 신도들의 집단 주거지로 조성되어 초기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근대 및 현대 역사의 현장이다. 마을은 계단식 남향가옥구조로 정연한 형태와 특징있는 색채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70~8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과 지역개발 과정에서도 소외되거나 외면당한 탓에 마을의 원형을 보존할 수가 있었으나 오늘에 와서는 마을의 빈집이 300체에 이를 정도로 공동화와 슬립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기에 이번의 미로미로 골목길 가꾸기 사업은 전통마을의 보존적 의미에서나 도심재생의 문화공간 만들기의 본보기로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이곳은 연중으로 사진작가들의 작품소재 발굴대상지로 방문이 잦은 곳이며 작년 10월에는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 조형물 설치 준공식과 11월 슬로시티 국제연맹 관계자들의 팸투어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의 방문 대상지로서도 관심을 끌었다. 뿐만아니라 중국 및 일본 등 외국 관광객들의 방문도 날로 달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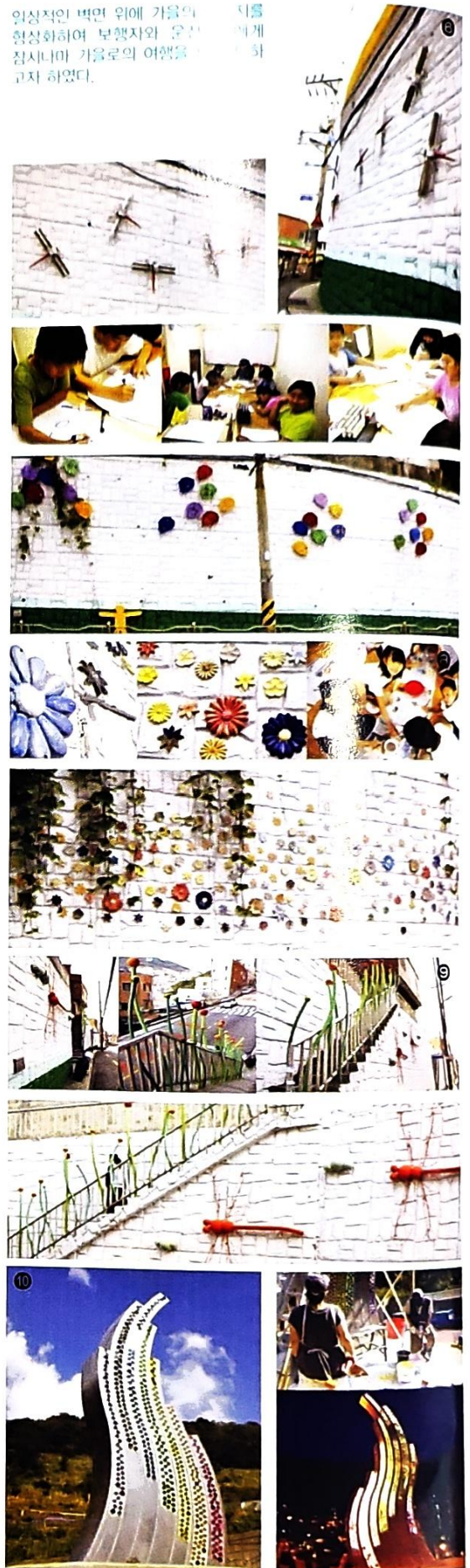
이곳 미로미로 프로젝트와 연계된 주변 관광지나 관광자원도 다양하다. 감천2동과 가까운 다대포 해수욕장 입구에 설치된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다대포 해수욕장, 물운대, 을숙도의 철새공원과 조각공원, 낙동강 하구의 에코센터와 물 문화관, 낙동강 하구 전망대, 인접한 천마산 조각공원, 송도 해수욕장, 용두산 공원, 그리고 국제시장과 자갈치 시장등이 모두 외래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 들이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미로미로 골목길 프로젝트의 금후 콘텐츠 개발 및 운영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테마가 있는 빈집 프로젝트로서 계단식 산복도로에 산재한 빈집 300여 채 중 바다와 연계된 조망이 좋은 위치의 빈집을 활용하여 예술창작실 및 작품전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일이다.

둘째로 골목길 프로젝트로서 감천 2동 특유의 정서와 풍경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골목길에 조형물, 벽화 등 조형 요소를 적절히 배치하여 관광객을 유도하는 한편 테마의 집들을 연결하는 통로를 조성하는 일이다.

손해식 편집위원

- ① <달콤한 민들레의 속삭임> 신무경 작가
- ② <사람 그리고 새> 전영진 작가
- ③ <꿈꾸는 물고기> 박경석 작가
- ④ <Good Morning!> 백성근 작가
- ⑤ <희망의 노래를 담은 풍선> 안재국 작가
- ⑥ <가을여행> 안승학 작가
- ⑦ <내 마음을 풍선에 담아> 박은생 작가
- ⑧ <우리가 가꾸는 꽃길> 하영주 작가
- ⑨ <하늘계단> 박인진 작가
- ⑩ <우지개가 피어나는 마을> 문병탁 작가





러시아 방송국기자와 인터뷰하는 강신혁단장

부산의료계 글로벌 마케팅 러시아 의료관광시장 개척단 파견

강신혁 강동병원장, 남정진 동아대의료원장, 임병용 부산대 의
무부총장, 황태규 해운대백병원장, 신동훈 신통한의원 원장, 최민
호 노블레스 성형외과 원장, 박원욱 부산고려병원장, 정성훈 ABC
성형외과 원장, 김기천 부산시 보건위생과장 등 부산지역 의료계
관계자 26명은 10월 25일 김해공항에서 5박6일간의 일정으로 블
라디보스토크와 사할린 등 극동 러시아의 의료관광 수요를 겨냥
한 시장개척단으로 참가하였다.

시장개척단장을 맡은 강신혁 원장은 "러시아에 부산의 특화된
의료관광을 홍보하고, 참가하는 병원들의 수준 높은 의술을 소개,
신실적인 해외관사를 유지할 수 있는 유망 상담의 계기가 되었
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산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외국 환자 4676명 가운데
25%인 1152명이 러시아 출신들이었 정도로 러시아는 의료관광분야
시장이 크다. 블라디보스토크와 부산은 직항로 개설로 2시간 30
분이면 오갈 수 있다. 지난 9월 1-3일에는 부산 롯데호텔에서
'2010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이 열렸다. 지역 병·의원 등이
55개 부스를 운영했고, 10개국 100여명의 해외 바이어들이 참가,
비즈니스 상담을 했다.

또 부산과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시카고의 15개 여행사 대표 20
여명이 지난 9월 8-10일 부산을 방문. 의료관광에 대한 설명을 들
었다. 부산진구 서면의 온종합병원은 지난 9월 말 60대 러시아인
을 상대로 한 위암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병원측은 "이를
계기로 암 수술 등 의료 관광시장의 새 분야를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11월 중에 중국 베이징의 의료계 인사들을 초청, 부산
지역팸투어를 시켜주는 등 건강검진과 성형, 척추질환 치료 등 환
자별 맞춤형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 대대적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
다. 부산시는 이에 앞서 최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주메디투어파
트너스, (주)현대메디스, (주)코비즈 등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
해각서를 체결했다.

실제 부산의 외국인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수영구 좋은강안
병원의 경우 지난해 종합검진과 진료로 89명의 외국인 환자들을
받았다. 러시아 83명, 몽골 2명, 중국 4명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해
외 환자 수가 지난 7월 말 현재 196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러시아가 190명이었다. 이 병원은 러시아와 중국 환자를 돕기
위한 전담 통역을 두고 있다.

병원 간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 교류는 대개 부산의 병
원들이 후진 지역에 기술을 전수해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러
시아지역 의료관광 시장개척의 선두주자로 알려진 강신혁 원장
이 경영하는 강동병원은 10월 11~25일 러시아 하바로브스크 지역
정형외과 전문의 1명을 교육시키는 등 인도·베트남·말레이시
아 등지의 정형외과 의료진 10명에 대한 연수교육을 했다. 좋은문
화병원도 지난 4월 몽골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1명의 연수를 하는
등 매년 1~2명 이상의 후진국 의료진에 대한 연수를 해주고 있다.

이민지 객원기자

부산문화재단, 休·安·情 관광사업 가동

문화가 깃든 체험형 관광으로 산재된 관광지 개발로 숨은 명소 제대로 알릴 터



도립도자기공원



소름요



장안사



아쿠아리움

부산문화재단은 지난달 23일부터 남해안 관광활성화사업의 일환인 '2010 休·安·情 관광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 동쪽에 길을 묻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休·安·情 관광사업은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마음의 휴식(休)과 안정(安), 그리고 정감(情)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서 비교적 관광지로 잘 알려지지 않은 기장 등 동부산권의 숨은 명소를 발굴 및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오는 11월 28일까지 총 18회 매주 토, 일요일에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당일 관광이 이루어지는 休코스, 安코스, 情코스와 외국인 특별코스, 休·安·情 1박 2일코스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농촌체험, 도예체험, 예절 및 전통체험 등의 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특히 기장일대의 관광코스는 오영수 작가의 소설 「갯마을」의 배경지인 학리마을, 고산 윤선도가 7년간 유배생활을 했다고 전해지는 황학대, 국내 최고령 나무인 1,300년 수령의 하장안 느티나무, 국가 기원제를 지냈던 국수당, 자연과 농촌, 예술품이 하나된 예술가들의 전시·창작촌 등 숨겨진 볼거리가 다양하다. 또한 기장이 삼국시대부터 가마터로 유명한 짐을 감안, 관광객들이 옛 도예공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소름요, 상주요 등 도예(陶藝)의 세계로 안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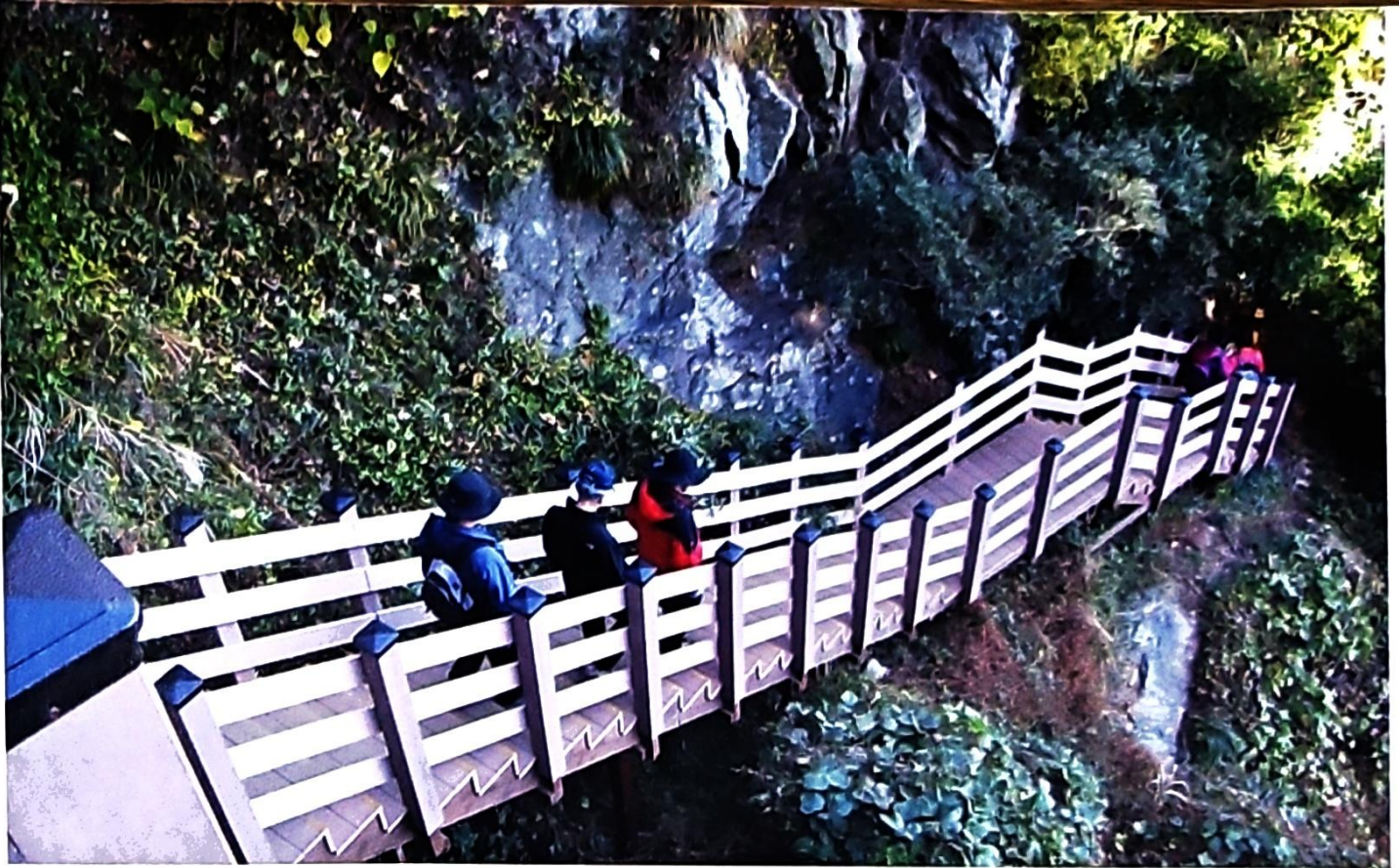
부산문화재단 관계자는 코스별 탐방지의 시설을 정비하고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등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부산을 동부산권, 서부산권, 원도심권으로 나누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45-7252,

홈페이지 www.busantour.or.kr)

휴안정 관광이란 남해안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소비도시로서의 부산의 이미지가 아닌 문화예술을 접목한 휴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음의 休(휴)와 安(안)과 情(정)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관광을 의미한다. 2010년 현재, 동부산권(기장벨트 중심) 개발을 시작으로 2011년 원도심권, 2012년 서부산권 개발이 계획 중이다.

2010년 휴안정 관광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기장 도역권 건설에 앞선 동부산권 홍보와 산재된 관광지를 休(휴), 安(안), 情(정)이라는 테마로 새롭게 재구성 함으로써 기존 관광지와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했다. 그 목적은 '마음의 休와 安을 가져다주는 여행'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문화예술 접목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타 시도와 구분된 관광프로그램 개발, 기존의 프로그램처럼 단순히 지역문화를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능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손과 발을 많이 쓰는 참여형, 체험형 위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가 방문자들의 삶의 부분으로 스며들게 함으로써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광만족도 향상에 기여, 해외 관광객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산과 도시, 바다가 공존하는 '부산만의 특색 있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장기적으로 잠재적인 부산관광 민간 홍보대사로 육성하고 산재된 관광지를 코스별로 통합, 분배하여 새롭게 재구성함으로써, 기존의 관광지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부산문화재단 제공)



이기대 해안둘레길

休·安·情 관광안내

休코스 (당일)

기장의 숲 속 오솔길, 그곳에는 특별한 미술관이 있다. 오픈스페이스 배에서의 예술체험과 우리나라 현존 최고령 수인 하장안 느티나무와의 만남, 장안사 일대의 산책을 통해 일상에 작은 쉼표(休)를 찍고 간다.

유람선 관광 → 이기대 → 토암도자기공원 → 오픈스페이스 배 → 하장안 느티나무 → 장안사

安코스 (당일)

고즈넉한 어촌 마을 죽성리, 그곳이 고산 윤선도의 유배지였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죽성리 마을의 황학대, 도에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돌리보고 무명도공의 애환이 깃든 소름요에서 도에 체험을 통해 마음의 安을 가져 본다.

유람선 관광 → 이기대 → 토암도자기공원 → 죽성리 → 소름요 → 해동 용궁사

情코스 (당일)

오영수 소설 갯마을의 배경지인 하리마을을 시작으로 부산 시 지정 무형문화재 사기장 김윤태 선생님의 도에 이야기, 예술인과 마을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대룡마을, 그곳에서 특별한 마을체험을 통해 情을 느껴본다.

유람선 관광 → 이기대 → 토암도자기공원 → 일광해수욕장 일대 → 상주요 → 대룡마을(아트 인 오리)

외국인 특별코스 (당일)

문화예절학교에서의 전통체험을 중심으로 기장 친해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해동용궁사 방문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휴,안,정을 느끼기도 록 한다.

유람선 관광 → 기장문화예절학교 → 해동용궁사 → 부산아쿠아리움

休,安,情 코스 (1박 2일)

休,安,情 코스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들을 돌리보고 ECO산입으로 각광 받는 고리원자력발전소 견학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첫째 날 : 유람선 관광 → 이기대 → 하장안 느티나무 → 장안사 → 대룡마을(아트인 오리) → 부산아쿠아리움

둘째 날 : 해동 용궁사 → 토암도자기 공원 → 죽성리(두호마을) → 기장도예관 → 기장문화예절학교 → 고리원자력발전소

● 거가대로 개통



전체도로는 '거가대로',
교량은 '거가대교',
침매터널은 '가덕해저터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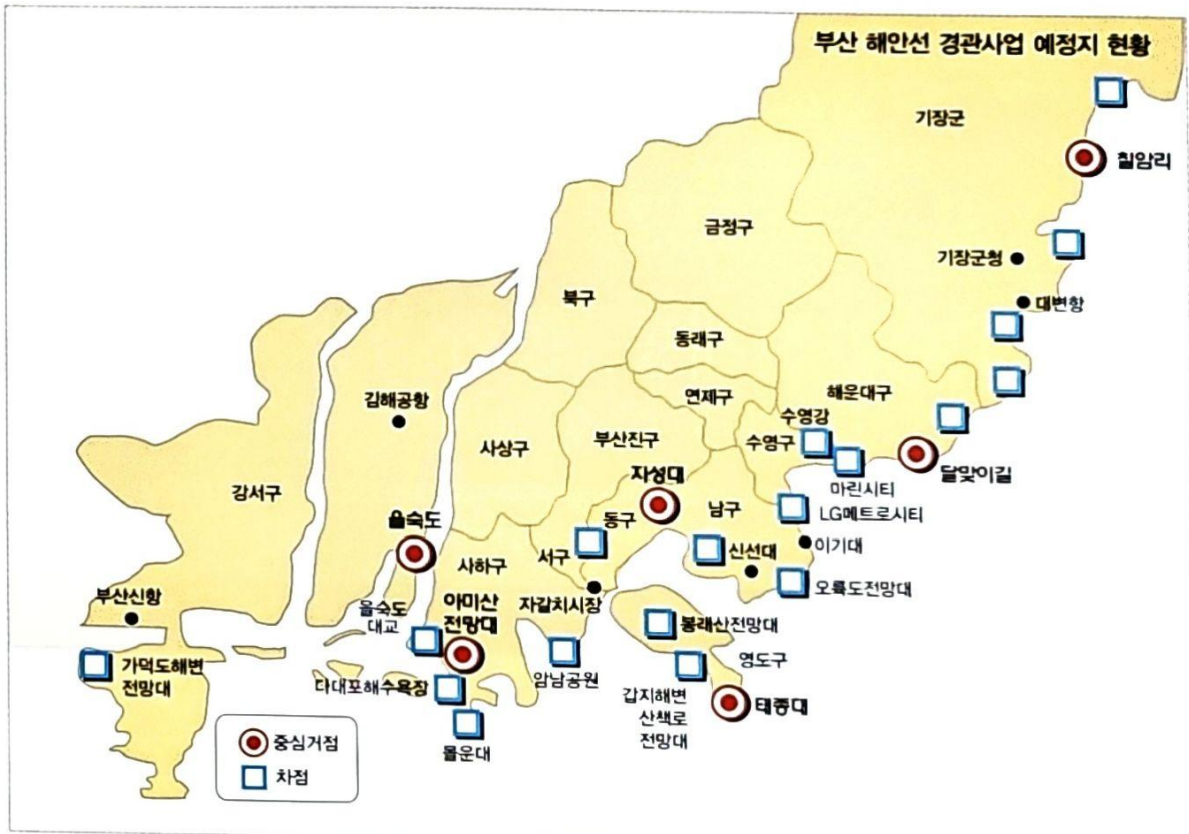
거가대로

세계 최장(最長)이자 국내최초인 부산~거제 연결도로가 다음달 중순에 개통된다. 부산~거제 연결도로는 전체 33.84km의 노선명을 '거가대로'라 정하고 교량은 거가대교, 침매터널은 '가덕해저터널'로 정했다.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부산과 거제사이 거리는 140km에서 60km로, 이동시간은 2시간 10분에서 50분으로 단축된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부산 해안선 306km, 절경 조망 공간 46곳 설치

정부 해안경관 시범사업, 2013년까지 국·시비 35억 들여



부산시가 부산의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즐길 수 있게 끊어진 해안선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35억원(국·시비 각 50%)을 들여, 부산 해안선 306.2km에 조망거점 및 조망지점 46곳을 설치하는 '해안경관 조망공간' 조성에 나선다. 이 사업은 부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토해양부의 '동시남해 해안권 해안경관개선 시범사업'에 응모, 당선됨에 따라 추진한다. 부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잊혀지고 사라진 해안절경을 찾아내 해안경관 조망명소로 탈바꿈,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해양 도시'의 매력을 전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해안경관 조망명소 46곳은 기장군 삼성대에서 출발, 자성대, 태

종대, 물운대를 거쳐 강서구 가덕도까지 해안을 따라 들어신다.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해운대 달맞이 고갯길, 부산의 명물 오륙도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남구 신선대, 남항·북항 등 부산항 전경과 도심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중구 대청동 중앙공원, 일출과 일몰을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사하구 다대포 등이 대표적 후보지다. 부산시는 절경 감상 포인트에 의미를 더해 옛 모습·대중가요·문화 등과 연결해 '스토리텔링'의 옷을 입힌다는 구상. 부산시는 오는 12월 해안경관 조망공간 마스터플랜을 발주, 조망·전망대 설치지점과 각 지점별 특성에 맞는 시설형태를 확정하는 한편 이들 각 조망·전망대의 스토리텔링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민지 객원기자





부산시 KTX 완전개통, 종합대책 추진

교통·유통·쇼핑·관광 의료 분야 전략산업으로

부산시가 지난달 KTX 완전 개통에 따라 4대 분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부산 인구의 수도권 이탈을 최소화하고, 인근 도시 주민과 외지 관광객을 부산으로 더 끌어들이기 위해 교통, 유통·쇼핑, 관광, 의료분야 전략을 세웠다.

교통

우선 늘어날 외지 방문객을 위해 교통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부산역에서 택시승강장,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으로 이동하는 환승동선에 비를 맞지 않도록 캐노피를 12월까지 설치한다. 시내버스 정류소 자동안내기와 환승안내기도 추가로 세운다. 계단으로 돼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KTX 진입구간에 경사로를 새로 설치, 대형 여행용 가방을 끌고 오르내릴 수 있게 한다. 또 거가대교 개통에 맞춰 부산역-경남 거제 버스노선을 신설, 다음달 9일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부산역 앞 아리랑 호텔 쪽과 역 뒤쪽 충장로에는 택시베이를 만든다. 부전역은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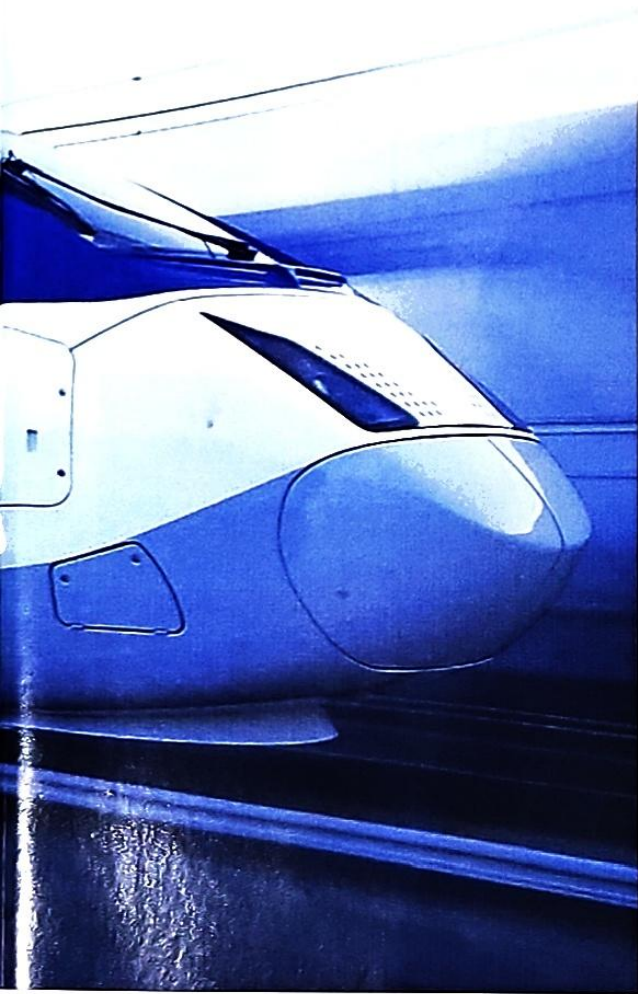
유통·쇼핑

부산역과 가까운 자갈치 시장엔 15억 2000만원을 들여 이달부터 뮤지컬 전용극장, 게스트하우스, 문화공연장을 만든다.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조성하는 것. 또 특별 야시장을 설치해 울산·경주권 당일 쇼핑객을 유도하고, 부산역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쇼핑 전용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다. 부산역사 안에는 유통 및 전통시장 홍보관을 운영해 백화점과 자갈치시장 등 인근 전통시장 홍보책자와 공동 할인쿠폰을 만들어 비치하는 것은 물론 쇼핑물품 보관소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관광

시는 시티투어버스는 3대를 더 추가하고 새로운 문화관광과 시티관광을 집목한 역사·문화 테마형 코스를 개발한다. KTX와 연계한 부산형 관광택시도 도입한다. 야경 관광코스 같은 택시전용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 부산역을 출발하는 진일(全日)관광코스 상품도 만든다. 동·서 부산으로 나눠 7~8시간을 관광할 수



“ 다른 정차역과 비교할 때 부산의 강점은 관광·레저 쇼핑 분야. 특히 근거리인 울산 경주 주민들에게 부산의 관광·쇼핑 의료 교육 부분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다는 분석이다. ”

있는 2개 코스의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KTX와 연계한 순환 크루즈 운항 지원에도 나선다. 공연, 포럼, 불꽃놀이와 연계한 순환 크루즈를 시범운항하고, 레스토랑·컨벤션·뮤직바를 갖춘 2000t 규모의 중대형 관광유람선을 유치할 계획이다.

의료

이 외에도 지역 의료기관을 전문화한다. 동아대병원 심·뇌혈관질환 전문센터, 부산대병원 외상전문센터와 호흡기질환 전문센터를 지원, 각각 2012년, 2013년, 2014년 개원한다. 중·소병원의 장점을 살려 전문병원 특화사업도 펼친다. 세일·센텀·강동·중앙유병원을 관철질환 특화병원화한다. 강동병원은 척추, 하나병원은 화상, 세계로병원은 유방, 파크사이드재활 의학과병원은 재활의학, 성모안과 의원은 안과질환 전문병원으로 특화한다.

부산발전연구원(BDI)이 최근 분석해 발표한 'KTX 2단계 완전

개통 영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울산-경주 및 부산-권도시간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다.

KTX 2단계 개통으로 서울-부산 소요시간이 2시간 18분, 부산-울산 16분, 부산-경주 23분, 부산-대구 38분으로 크게 단축, 부산의 생활·경제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천·구미 대구 울산 경주지역 주민들의 부산활동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BDI가 KTX정차역 8개 지역민 593명을 대상으로 관광·레저 쇼핑 교육 의료 공연 같은 5개 분야에 대한 활동별 비중변화를 설문조사한 결과 김천·구미 대전 천안·아산 지역민의 부산활동은 지금보다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과 경주지역민의 경우 부산에서의 활동이 2.4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정차역과 비교할 때 부산의 강점은 관광·레저 쇼핑 분야. 특히 근거리인 울산 경주 주민들에게 부산의 관광·쇼핑 의료 교육 부분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부산시관광협회 공동주관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 심포지움 개최

남해안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필요성 공감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심포지움이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남상만)와 부산광역시관광협회(회장 이근후) 공동주관으로 개최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부산광역시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한국관광공사빌딩 지하1층 TIC상영관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심포지움이 관광협회 임직원과 관광분야 전문가, 관광업계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움은 안양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박의서 교수와 경기대학교 이벤트학과 이경모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한국관광협회 최노석 상근부회장 주재로 호남대학교 김진강 교수, 신라대학교 김재원 교수, 제주관광대학 박동균 교수, SK네트웍스(주) 위키힐 김영문 상무이사, (주)모두투어 인터네셔널 장유재 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남해안의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남상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KTX 완전개통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게 된다"면서 "국내

관광 활성화는 물론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들의 관광객들도 남해안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해안의 접근성 향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남해안의 관광산업 활성화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한편, 심포지움 제1주제를 발표한 안양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박의서 교수는 "한국관광의 균형발전과 남해안 관광산업"이라는 주제를 통해 관광산업 분야에서의 수도권 집중화 실태를 소개하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남해안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통합인프라 구축, 세계적인 휴양관광벨트 조성, 글로벌 물류거점 육성, 24시간 운영 국제공항 신설 등을 제시하면서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최근 소득수준 향상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인들의 해외관광 추세를 2020년이면 1억 3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와 같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중국 관광객을 우리나라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남해안에 제대로 된 공항건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한중간 항공노선의 확대 개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뿐만 아니라, 제2의 관문역할을 할 수 있는 신공항이 남해안에 건설되어 남해안까지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경기대학교 관광대학 이경모 교수는 “동북아 크루즈 산업전망과 남해안 관광벨트 발전전략”을 통해 세계 크루즈산업은 연평균 7.2%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동북아지역에서도 최근 크루즈에 대한 관심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크루즈 기항지의 경제적 효과가 커지고 있어 중국에서는 이미 천진, 상해 등에서 크루즈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국내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통해 남해안 관광산업을 활

성화함으로써 동북아 크루즈산업의 대중화를 앞두고 선도적 우위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크루즈의 기항지를 특화 시키고, 기항지간을 연계 시켜야 하며, 크루즈 선박의 기항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함을 물론, 11월 1일부터 완전 개통된 KTX와 크루즈를 연계하는 방안, 항공과 크루즈를 연계하는 방안 등 크루즈 상품 개발과 일본, 중국 시장의 고객을 유치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부산광역시관광협회는 이번 심포지엄 결과를 토대로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해안권 관광활성화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고 남해안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일본 관광객 휴대폰으로 관광안내 관광지·호텔·맛집·쇼핑 정보 자세히 제공

부산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부산관광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광역시는 일본인 관광객들을 위한 '휴대전화 부산관광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일본 현지에서 보편화돼 있는 'QR(Quick Response)코드'를 이용, 부산의 관광·숙박·쇼핑·맛집·축제 정보와 자세한 지도를 제공한다.

'QR코드'는 일본에서 많이 이용하는 바코드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해당 모바일사이트로 연결해 각종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다. 부산시는 이 서비스를 위해 관광지과 관광안내소, 호텔, 음식점등에 'QR코드'를 붙이고, 'QR코드'를 붙인 관광안내 책자 2만 5천부를 제작해 공항과 호텔 등에 배포했다. 또 일본 대표 모바일 통신 3사에 부산관광 콘텐츠도 제공했다.

부산시는 “워킹투어 단말기와 모바일 관광안내 서비스에 이어 이번에 'QR코드'를 활용한 휴대전화 관광안내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음식 최고의 관광브랜드

방한 외국인 한국 대표매력으로 음식 꼽아



방한 외국인들은 한국의 매력으로 음식을 첫 번째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4개 공항, 인천항을 비롯한 2개항에서 한국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외래 관광객 1만15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여행 실태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방한 외국인들이 한국여행을 결정한 동기로 1위는 한국음식, 2위는 가까운 거리, 3위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꼽았다. 업계관계자들은 음식을 비롯한 한국전통을 소재로 한 MBC드라마 대장금이 일본·중국·대만 등지로 수출돼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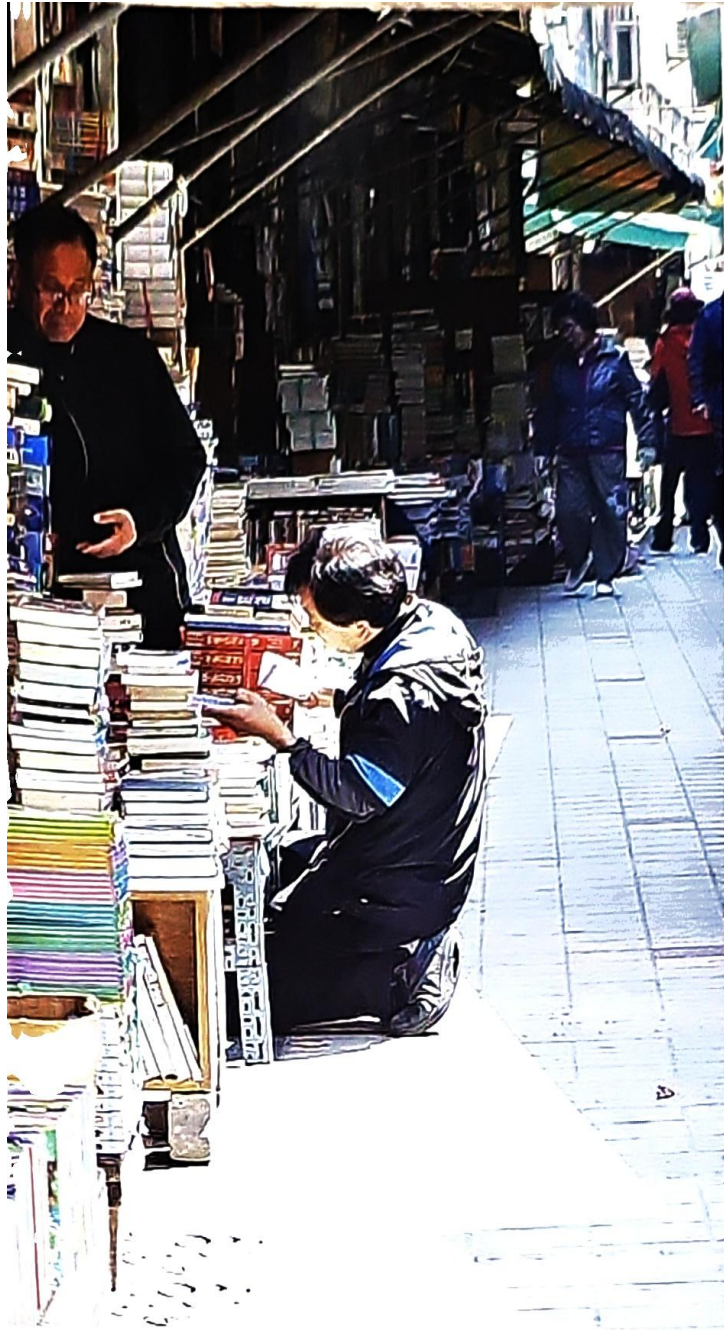
또 한국음식에 많이 들어가는 고추, 마늘 등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한국음식의 인기에 힘을 더해줬다. 이에 따라 방한외국인 중 20.3%가 한국여행의 동기로 음식을 꼽았으며 여행객의 절반 가량이 한국음식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 방한기간 중 주요활동에는 쇼핑 58.9%와 관광지 방문 56.1%에 이어

식도락을 꼽는 관광객이 38.9%를 차지했다.

한국음식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으로 매우만족이 27%, 만족이 43.7% 등으로 5점 만점에 평균 3.93을 기록했다. 이외에 출입국 절차 4점, 대중교통 3.85점, 숙박이 3.96점, 쇼핑이 3.86점을 기록했다. 한국여행 시 인상 깊었던 점으로도 한국음식이 2위를 기록했다. 방한 외래객 중 48.5%가 '음식이 맛있다'는 것을 한국의 매력으로 꼽았으며 안전성(43.2%)과 독특한 문화유산(40.8%)이 뒤를 이었다. 한국인의 친절함을 매력으로 꼽은 외국인은 58.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다채로운 매력 덕분에 관광객들의 한국여행에 대한 평가도 점차 좋아지고 있다. 한국여행을 매우 훌륭하다고 답한 사람은 24.5%, 훌륭하다고 답한 사람은 59.9%로 평균 4.08을 기록해 지난해 4.05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민지 객원기자



이효영 기자의 보수동 책방골목 탐방기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 먹자골목, 그리고 깡통시장을 지나 보수동 네거리, 큰길 안쪽에 들어서면 동·서로 이어지고 있는 골목길, 여기가 한국 뿐 아니라 세계유일의 보수동 책방골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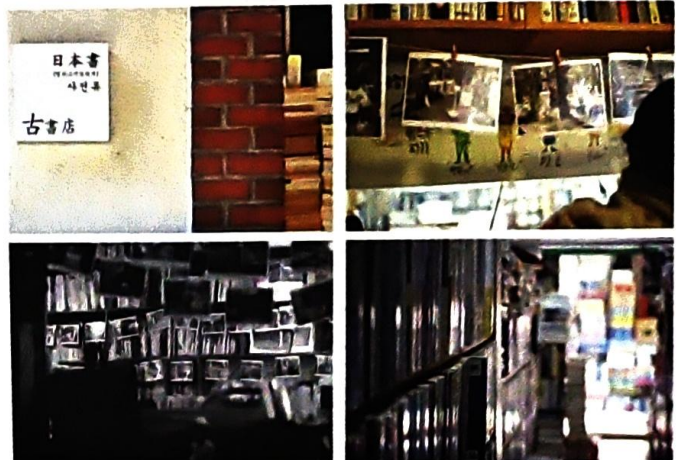
50년대 초 광복이후부터 일본인들이 버리고간 책들과 미군들이 보던 헌 잡지와 학생들이 내다 판 참고서 등을 끌어모아 좌판대에 놓고 팔던 헌책방 4곳이 생김에 보수동 책방골목의 시초라고 한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현재 보수동 책방골목은 60년 역

사를 자랑하는 국내유일의 문화의 거리이며 2010년 현재 고서에 서부터 각 분야별 전문, 희귀서적 수백만권을 갖춘 50여 서점들이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이곳을 자주 찾는다는 김종한씨(동래구 온천동)는 "사람과 사람이 첫 만남에 가슴 두근거리듯 이곳 책방 골목에 들어서면 오늘은 어떤 책을 만날지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한다. 그리고 "내가 원하던 책을 찾아 50%도 안되는 가격에 책을 구했을 때는 황재한 기분이 든다"고 말한다.

보수동 책방골목은 지난 9월 보수동 책방 골목 일원에서 '책은 살아야 한다'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일곱 번째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행사기간동안 부산·경남을 대표하는 남산놀이 마당의 풍물놀이·책방주인 경험하기·키다리아저씨와 함께하는 매직풍선 레크리에이션 등이 펼쳐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곳에서 35년간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충남서점 남명섭씨(55,전번영화장)는 하루 평균 평일 100여명, 휴일에는 200여명의 손님이 찾아주고 있지만 신학기 때면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손님이 찾는다고 귀띔한다.

보수동 책방 골목이 근래에 와서는 경제발전으로 새 책의 수요도 대폭 늘게 되어 새 책방들이 각종 양서를 구비하여 싸게 공급을 하면서 많은 서민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헌 책, 새 책이 같이 어우러진 전국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는 문화의 골목, 책방 골목으로 자리 잡혀 부산 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책방골목이 사라진다면 보수동 자체가 사라져 버릴 만큼 보수동 책방 골목은 우리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을 것 이라고 되뇌어 본다.





부산미래 도시관 부산의 과거 · 현재 · 미래가 한눈에

부산미래 도시관이 지난달 개관됐다. 부산시청 1층에 2020년 부산의 미래 발전상을 만나볼 수 있는 '부산미래도시관', 4천분의1 크기 모형도는 부산의 미래를 한눈에 보여준다. 가로 16m, 세로 10m의 대형모형을 통해 70여만 채의 건물, 도로, 산, 강의 모습, 센트럴 베이, 부산시민공원, 광안리해수욕장 등 13개의 랜드마크 모형쇼를 조명과 영상이 어우러진 상태로 볼 수 있다. 관공서, 항만, 철도 등 247개 주요시설을 터치스크린 검색기로 찾아볼 수 있다. 모형도 정면에 있는 스크린의 궁금한 곳을 누르면 하아리아부대가 있던 자리에서 부산시민공원이 조명을 반짝이고, 동부산관광단지까지 불쑥 올라오는 식이다.

부산미래도시관은 입구부터 시작해 부산 역사관, 현재관, 미래관, 메모리홀, 4D 영상체험관으로 이어진다. 그 이름처럼 미래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다. 4D 영상관도 있다. 이곳에서는 세계적

도시사회학자 존 스튜어트가 2020년의 부산을 돌아보는 내용의 7분 짜리 입체영상물을 상영한다. 해안가를 지날 때는 물보라가 얼굴에 튀고, 비행물체를 타고 도심을 누빌 땀 손에 땀이 난다. 3D를 넘어선 4D의 입체감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10년 뒤의 부산이 궁금하다면 지금, 부산미래도시관으로.

김대현 객원기자



[개관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단체관람 예약문의] 전화 888-2759.

올 국제영화제 · 불꽃축제 1천 286억원 경제효과

일본 · 중국 · 동남아 등 외국인 관광객 1만명 넘게 찾아

부산불꽃축제가 한국 방문의 해(2010~2012년) 대표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체류형 관광축제로 자리 잡았고 국제 영화제 역시 단순 이벤트를 넘어 산업적 기반으로 이어져 부산에 1천 286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부산 발전 연구원에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PIFF와 불꽃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 올 부산국제영화제의 생산유발액은 536억원, 세계불꽃축제는 750억원 생산유발효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르노삼성자동차 SM5 5천145대를 수출하거나, 중소기업 26개를 운영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라는 설명이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생산유발액 536억원, 소득유발액 126억원, 취업유발인원 1천115명의 경제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계 불꽃축제는 생산유발액 750억원, 소득유발액 311억원, 취업유발인원 1천737명 등으로 추정됐다. 행사에 든 비용은 국제영화제 95억여원, 불꽃축제 20억여원으로 두 행사 모두 6~35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분석이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민간전문가 중심 자율운영, 집행위원장 역량, 관객 자발적 참여, 자원봉사자 헌신 등이 성공요인으로 꼽혔다. 부산불꽃축제는 부산시 의지, 접근성과 관객집적 기능을 갖춘 광안리 해수욕장 입지, '나이아가라 폭포'로 대표되는 역동적 콘텐츠 등이 조화를 이룬 결과로 평가됐다.

부발연 우석봉 연구위원은 "국제영화제는 단순 이벤트를 넘어 산업적 기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모바일 게임, 애니메이션 등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 티파니21, 다양한 연말행사 마련

Tiffany21



티파니21, 다양한 연말행사 마련

고품격 선상파티 크루즈 Tiffany21

겨울을 맞아 진행되는 티파니21만의 특별한 이벤트



고품격 선상파티크루즈 티파니21은 겨울을 맞아 다양한 연말 이벤트와 겨울 한정메뉴 등으로 고객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디너투어에 승선하시는 모든 고객에게 기존의 선상 뷔페메뉴 이외에 석화, 과메기, 오징어순대 등 겨울 제철음식을 추가로 제공한다. 광안대교 바로 아래에서 즐기는 바비큐도 연말 선상파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특히 12월 25일은 선상 불꽃쇼와 함께 로맨틱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으며, 24, 25일 양일 간 크리스마스를 더욱 즐겁게 해 줄 '산타와 포토타임'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산타와 함께 티파니21에서 찍은 사진을 후기로 남기면 추첨하여 산타의 선물을 받는 행운도 잡을 수 있다. 가족, 연인과 함께 특별한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티파니21에서 만들어보자.

12월 31일 선상 해넘이도 놓칠 수 없는 행사로 2010년을 보내며 선상에서 쏘아올리는 불꽃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고, 2011년 1월 1일은 선상에서 해돋이를 보면서 힘찬 한해를 시작할 계획과 이루고 싶은 소망을 소망풍선에 담아 날려 보낸 후 따뜻한 떡국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니 연말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가 있는 티파니21에서 한해의 마무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와 함께 12월 25일 티파니21은 디너투어 승선고객대상 응모권 추첨을 통하여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는 행사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oveacruise.com)를 참고하세요.

[운항코스]

주간 : 동백섬—해운대—오륙도—이기대—광안대교

야간 : 동백섬—누리마루—해운대—광안대교

[운항시간]

주간편의 12:00~14:00 | | 쿠키투어 15:30~17:00 |

야간편의 19:30~21:00 | | 나이트투어 22:00~24: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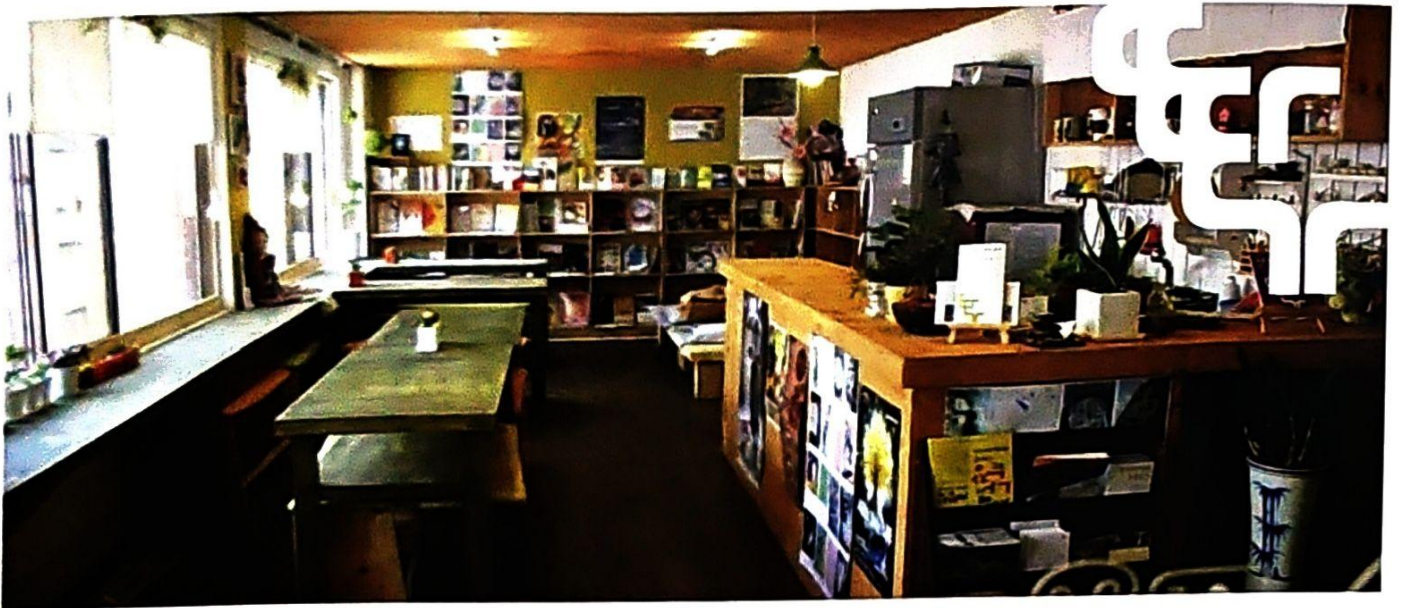
12월 25일 마련사의 선상

행사를 진행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TOTATOGA)' 이야기



또따또가는 관용이나 문화적 다양성을 뜻하는 프랑스어 '톨'레랑스(Tolerance)와 '따'로 활동하지만 '또' 같이 활동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거리나 지역을 나타내는 한자 '가(街)'를 합성하여 우리말로 표현하고 있다. 중구 중앙동 40계단 주변과 동광동의 빈 상가 18곳을 리모델링 해 무대예술 트레이닝센터, 미술작가 작업실, 수공예 아티스트 센터, 원도심 인문학 센터, 독립영화 갤러리, 작가 집필센터, 또따또가 갤러리 등을 조성하여 새로운 문화 르네상스를 열어가고 있으며 비록 소박하지만 원도심의 흔적을 담고 있다.



또따또가(TOTATOGA) 의미와 목적에 대해

정치, 사상에 있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이념적 관점들을 이해하고 관용한다는 의미로 쓰이며 때로는 문화다양성을 대신하는 용어인 톨레랑스(Tolerance), 여기에 '따'로 또 같이 라는 우리말을 조합하여 만든 합성어로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이 때로는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하나의 문화지대를 만들고, 많은 예술가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활동하지만 때로는 통합 사업이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작업하여 가는 문화 클러스터를 지향한다는 뜻이다. 즉, 또따또가는 예술가의 전문적 문화가치와 시민의 보편적 문화가치가 결합되어 창조적 상상력이 넘치는 역동적 프로슈머(Prosumer) 문화시민의 양성과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다만 이러한 목적은 엄청난 거대담론을 향하지 않으며,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꽃피게 할 수 있는 매우 소박한

커뮤니티를 그 지점으로 한다. 또따또가의 '가'는 거리를 뜻하는 한자어 '街'자를 사용하여 독립적인 공간이 아닌 하나의 커뮤니티 문화지대를 뜻한다. 또따또가라는 명칭에는 또따또가가 지향하는 모든 것이 모두 담겨 있다 하겠다.

또따또가는 문명의 다른 이름인 도시에 상주한다. 그러므로 도시, 공간, 예술, 기계, 건물, 디자인이니 하는 개념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따또가는 도시의 사람을 주목한다. 도시의 개념들에 젖은 기계적인 르네상스인이 아닌 르네상스적 전인의 관점, 즉 생명력이 넘치는 유기적 삶의 르네상스가 실현되는 도시인, 바로 이런 르네상스인을 또따또가는 향한다. 참으로 볼 것 없고, 작고 소박할지 모르지만, 유구한 역사의 고색찬연한 유적과 유물이 없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인간적인 것이냐의 문제다. 우리의 도시가 유구한 역사의 자취가 없고 보존하지 못한 것

도심창작공간을 활용한 각종 행사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도시의 문화가 인간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박홍규의 메트로폴리탄게릴라 중에서 일부 인용) 최고, 최대이니 하는 말은 또따또가와는 관계가 없다. 작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 성과의 가능성을 제시한 주목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건물 소유주, 소통의 과정을 일깨워 주다.

중양동, 동광동 등 중구 일대는 부산의 대표적 원도심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은 한때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중심지였고 시청소재지로 부흥하였던 지역이다. 그러나 부산시청이 연산동으로 옮기면서 급격히 쇠퇴했다. 또따또가는 창작공간 개념의 전환을 전제로 특정 장르를 중심으로 한 독립적 개별공간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장르의 예술영역이 개성과 통섭의 눈으로 서로를 들여다 보고, 동시에 예술

가만의 단절된 창작공간이 아닌 프로슈머의 가치를 창조하는 시민들과의 소통으로 만들어 가는 하나의 문화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 임대료 지원 외 일반 등의 지원금지, 지원기간내의 자생력 확보, 개별공간관리비부담, 의무공간사용일수준수, 통합프로그램참여, 시민교육프로그램의무, 장르별창작실적제시 등 입주예술가의 역동성 요구
- 공간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컨소시엄형태의 공모방법 채택
- 공간건물주들의 매칭 효과 유도(2억추산)
- 공간소유주, 기초지자체 등과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 구축
- 민간메세나를 활용한 공간별 지원 방안 마련
- 예술경영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스템 운용
- 산업적 콘텐츠 육성 네트워크 형성

김봉오 본지편집위원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원도심문화창작공간<또따또가>조성운영지원사업
- 사업장소 : 부산 중구 중양동·동광동 일대(40계단 반경200미터 이내)
- 사업기간 : 2010년~2012년까지 3년간
- 사업규모 : 20개소 43실 총2,673㎡(810평)
- 사업주체 : 부산광역시
- 주 관 :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 운영지원센터 : 중구 중양동3가 12-3번지 미진빌딩 3층
TEL)051-469-1978, 051-441-1978
FAX)051-467-1978
홈페이지 주소 www.tttg.kr

[창작공간 18개소]

- ①무대예술 트레이닝 센터, ②코랄센터, ③문화여행 정보센터
- ④또따또가 갤러리, ⑤청년·인디 인큐베이팅 센터,
- ⑥전통예술 아티스트 센터, ⑦수공예Shop '은여우', ⑧운영지원센터
- ⑨수공예갤러리 '시화방', ⑩문화잡지 '보일라VoiLa',
- ⑪미술창작공간(사진,설치) ⑫원도심 인문학 센터 '백년여',
- ⑬소극장 '자유바다', ⑭사진 커뮤니티 공간 '기프트Gift'
- ⑮독립영화 갤러리 '보기드문', ⑯독립영화 디렉터 존,
- ⑰문화창작공간, ⑱미술창작공간

범어사 템플스테이 Temple Stay

템플스테이란

사찰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체험하는 템플스테이(Temple Stay)는 2002년 한일 월드컵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문화체험의 방법이다. 월드컵 당시 우리네 숙박시설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또 대부분 유흥가에 밀집되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불교계가 함께 고민하여 템플스테이 라는 새로운 사찰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푸른 자연이 살아있는 맑고 고요한 산사, 그곳에서 수행자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 그리고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함께 피어난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바로 템플스테이의 시작이었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부터 지금까지 약 40만 명이 참가 하였으며 특히 5만 명이라는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의 사찰을 찾았다. 올해 초 세계최대의 여행박람회인 베를린 국제박람회(ITB)에서 템플스테이를 주제로 한 한국관이 전체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쾌거이다. 많은 외국인들이 템플스테이를 경험한 후 '평화롭다(peaceful)' 고 이야기한다.



범어사전각

*범어사 템플스테이 연락 및 안내

전화 051-508-5726 / 팩스 051-508-3229

홈페이지 <http://www.beomeo.kr>

이메일 beomeosa@hanmail.net



범어사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와 템플라이프

범어사 템플스테이는 <참선>을 위주로 하며, <참선>은 수행자가 자기의 본래 면목인 '참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템플라이프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당일 사찰문화 체험코스이다. 프로그램은 사찰안내, 발우공양, 다도, 참선, 스님과의 대화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2-3가지 과정을 선택하여 체험할 수 있다. 진행 시간은 2-4시간 정도.

이용실태

범어사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대다수가 개인적으로 범어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고 있다. 20인 이상 단체에 맞춰 인원을 최소 10인에서 40인까지 조정하여 마감하고 있고, 단체는 월평균 7회 정도이나 주말은 항상 만원인 상태다. 매월 반복되는 2개 단계(외국인·내국인 각 1개씩)는 화요일과 수요일에 고정되어 있다. 범어사 템플스테이의 참가자 성향은 남자대 여자의 비율이 4대 6, 한국인과 외국인 비율이 6대 4이나 외국인 이용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범어사 템플스테이 카렌다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범어사 템플스테이 참가안내

불교 문화 체험형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있는 템플스테이로 처음 불교 문화를 접하는 분이나 일반 불자들이 사찰에서 머무르면서 스님들의 수행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외국인과 함께 하는 1박2일 템플스테이로 참가비는 어른 50,000원, 중고등학생 45,000원, 초등학생 40,000원이다.

• 휴휴 입문 템플스테이

기본프로그램(사찰예절, 예불, 스님과의 차담)+발우공양+108염주 만들기+참선+임자순례+법문+운력

• 심우 참선 템플스테이

기본프로그램(사찰예절, 예불, 스님과의 차담)+발우공양+참선, 참선II, 발우공양, 임자순례, 법문, 운력

생태체험형

봄/가을 범어사에서 사찰 문화 체험과 더불어 금정산 산행을 겸한다. 외국인과 함께 하는 1박2일 템플스테이로 참가비는 어른 50,000원, 중고등학생 45,000원, 초등학생 40,000원이다.

• 산행템플스테이

기본프로그램(사찰예절, 예불, 스님과의 차담, 공양)+산행+운력

휴식형

기본프로그램만으로 구성되어 자유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개인적으로 기도에 정진하거나 산책, 암자를 순례할 수 있다. 한국인을 위한 휴식형과 외국인을 위한 휴식형으로 나누어져 있는 1박2일 템플스테이로 참가비는 어른,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각각 30,000원이다.

• 한국인 영어 템플스테이

기본프로그램(사찰예절, 예불, 스님과의 차담, 공양)-매월 둘째주 화,수요일

• 외국인 영어 템플스테이

기본프로그램(사찰예절, 예불, 스님과의 차담, 공양)-매월 넷째주 화,수요일

특별형

여름이나 겨울에 특징한 대상이나 보다 집중적인 수행을 하고자 하는 분을 위하여 특별히 기획되는 템플스테이다.

• 여름/겨울 수행정진 템플스테이

기본프로그램이외에 3보 1배, 108배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된 3박 4일 프로그램 130,000원

• 청소년 템플스테이

방학을 맞은 중고등학생들의 신심 수련을 위한 2박 3일 템플스테이 80,000원

※ 보다 자세한 프로그램 및 참가안내는 좌상단의 연락처를 이용하면 된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템플스테이 체험수기

나를 찾기 위한 한 걸음 이성진 (女 38세, 경남 김해시 삼계동)

결혼을 한 여성이라면 이번처럼 긴 명절연휴가 그다지 반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 중 한 사람이었구요. 매년 명절을 기점으로 '화'라는 감정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그것이 또 다른 도화선이 되어 부부라는 관계를 더욱 힘들게 하는 반복이 되곤 했습니다. 이래저래 마음도 싱숭생숭... 사찰을 알고 불교를 알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냥 나를 위한 명절포상휴가라 생각하고 템플스테이를 신청했습니다. 찌짐을 구우면서도 친정에 일찍 못가서 서운한 마음도 그때그때마다 범어사의 1박2일만을 생각하니 기분도 한결 좋아지고 그런 제 모습에 제가 더 신기하더군요.

안다는 것과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다르다는 말씀을 듣고, 나는 오로지 아는 것만 있고 지혜는 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대로 아는 것이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요...) 그래서 살아가는 과정이 더 힘들었나봅니다.

주지스님의 말씀 '내가 있기에 상대방도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에 큰 힘을 얻게 되었고, 오산스님의 질문과 답변들이 저를 반성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항상 남의 탓으로 돌렸었는데... 템플스테이를 통해 마음이 많이 편해졌고, 수시로 제 입가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생깁니다. 미소가 그리울 때는 부처님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2010년 9월 28일)

10월의 마지막 밤 서민지 (女 29세, 부산 수영구 망미2동)

요즘 개인적으로 맘이 지치고 힘들었는데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많은 힘을 얻고 갑니다.

자기개발을 꾸준히 하고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라는 영명스님의 말씀이 안위하고 무시했던 제 삶에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인자하시고 온화하신 오산스님과 다도 시간도 잊을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템플일정이 끝나고 서둘러 가야 할 사람들은 가고 좀 더 아쉬운 사람들과 함께 오산스님 방에서 다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들한테만 주는 특혜 일까 내심 좋아했지만 그건 아니겠지요? 히히...

3종류의 차종 마지막에 먹은 맑은색의, 가격도 고가이라는... 알수 없는 정체의 그 차는 무엇인지요? 힌트는 소나무라고만 하시고 답은 가르쳐주지 아니하시고... 인터넷 지식검색도 해보았지만 답이 나오지가 않네요. 오징어처럼 질경질경한 껍질을 우리 마시는 것인데...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답을 알아야 다음에 또 그차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깐요!

좋은마음으로 하산하고 집에오자마자 노트에 스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생각나는대로 적어보았습니다. 가슴깊히 새기겠습니다. 단, 실천이 더 중요하겠지요? 함께했던 우리 일행님들, 자원봉사자분들, 소녀같은 보살님!

사진찍어주시느라 챙겨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게요. 행복하세요 (2010년 11월 1일)



한일해협 시도지사 관광협력키로

8개 시·도·현 경유하는 크루즈 상품 제안

한일해협 연안의 양국 시도현 지사들은 지난 6일 오후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제 19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를 열고, 제 3국 관광객을 공동으로 유치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의 부산과 경남·전남·제주도와 일본의 후쿠오카·사가·나가사키·야마구치 등 8개 시도현 지사가 함께했다.

회의에서 한일해협 연안 8개 시도현 지자체장들은 '관광'을 공동주제로 상호관광교류 활성화와 제 3국 관광객 공동유치를 위해 서로 힘을 모으아가기로 합의했다.

이들 시도현 지사는 본회의에서 각각의 주요 관광시책을 소개한 데 이어 지사회의 신규 공동사업으로 8개 시도현을 경유하는 크루즈 상품도 제안했다.

1992년 제주에서 처음 열린 한일해협 시·도·현 교류 지사회회는 한일해협 연안 도시간 우호협력 및 공동번영을 논의하는 협의체, 8개 시도현이 매년 순번제로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경제교류촉진사업 등 15개 한일 공동사업을 추진 중이다.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지사 회의에 참석한 지사들

이민지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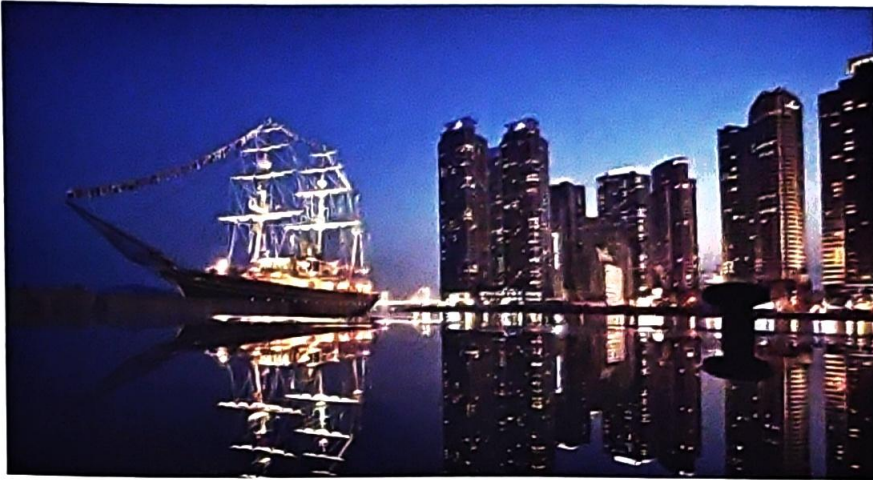
이름다운 부산항 풍광을 감상에서 즐길수 있는
누리마루호 크루징

테즈락 센트럴베이 크루즈 '누리마루호' 바다기행



많은 이들이 함께한 누리마루호 선상
여행객들은 물론 사진사들이 직업을 담기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여행의 일상화’는 결코 낯설지 않은 말이다. 그럼 어디로 가서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할까. 한참 생각다가 바닷길을 택하기로 하고 중앙동 여객터미널로 향했다. 마침 한 무리의 관광객이 연안여객터미널 선착장으로 가고 있다. 나도 그들을 따랐다. 그곳에는 우리나라에서 한척뿐인 해양 크루즈선인 돛을 단 누리마루호(총톤수 358톤, 승선인원 278명, 대표이사 이건중) 범선이 닻을 내리고 우아한 모습을 드러낸 채 기다리고 있다.



용호만 부두에 정박중인 누리마루호

10시 30분 늦가을. 하늘에는 구름이 덮혀 있고 춤지도 덮지도 않은 베타기에 좋은 날씨다. 누리마루호는 80여 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공해와 소음에 찌든 도심을 미끄러지듯 부두를 빠져나간다. 같은 풍경을 대하면서도 누군가는 평범함에 시큰둥해 하지만, 어떤 이는 그 평범함 속에서 영혼을 울릴만한 낯선 아름다운 풍광을 발견하고는 아!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는다.

그렇다. 평범함에서 비범함을 찾아내는 색다른 시선속에서 일상의 시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넘실대는 파도가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씻어준다. 누리마루호는 어느덧 손에 잡힐 듯 가깝게 오륙도를 지나고 있다. 부산을 상징하는 오륙도 갯바위를 점령한 낚시꾼들 머리위 바위엔 갈매기 배설물이 하얗다. 그리고 충절의 역사와 전설을 간직한 천혜의 자연경관인 이기대공원, 해안 산책로 7부 능선위로 단풍이 내려 앉았다. 이기대공원에는 지난 9월 해안산책로에 역사적 의미를 담은 시비가 건립됐다. 이기대공원의 전설을 묘사하며 두 기녀(妓女)의 조국애와 원혼을 달래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기대에서' 라는 시비인데 그 내용의 첫머리에

"두 기녀의 원혼들이 통열이 울부짖는 듯/휘몰아 치는 성난 파도와/무서운 폭풍우가 잠자산을 휘감는구나 이름모를 두 딸기 들꽃으로 스러졌지만/그대들의 지고한 조국사랑은/아무리 억겁의 세월이 흘러도/저 변치 않는 북극성처럼 찬연하리니(중략) 이름모를 두 딸기 들꽃이여/이제 그 활화산처럼 끓어오르는 분노를 접고영원히 안식 하소서 안식 하소서/ 목놓아 통곡하는 그대들의 원혼을/이 한편의 시로 위로하노니/편안히 영면 하소서 영면 하소서"

박상호 시인이 쓴 글이 눈시울을 적신다. 두 기녀의 슬픔을 뒤로 하고 누리마루호는 그 뜨거웠던 여름 광안리 해수욕장, 그리고 10월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불꽃축제가 열렸던 광안대교 옆 용호만 선착장에 도착했다. 11시 40분. 1시간 40분이 금방 지나갔다.

항도 부산! 그리고 누리마루호!

낮에는 보석같이 빛나는 바다의 반짝임과 밤에는 형형색색으로 치장된 빛의 향연을 즐길수 있다. 음악이 있는 유람선 누리마루호는 항도 부산의 명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고 바다에서 아름다운 부산항을 보며 토속적인 요리와 이벤트를 즐겨보라! 신선한 해물과 정성이 듬뿍 담긴 토속 요리 파전, 소고기덮밥, 카레, 해물구이, 전통주(막걸리), 뷔페 등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어떠한 모임이든 주간·야간 선상파티, 생일·결혼·졸업·만남 등 가슴 두근거리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테즈락크루즈 누리마루호다.

주간 제1항로수시운항터미널-오륙도-광안리-용호동제2항로터미널-태종대-몰운대-생도-오륙도-광안리-용호동제3항로터미널-태종대-오륙도-광안리-용호동제4항로터미널-오륙도-용호동-해운대-광안리-용호동야간제1항로-제4항로19:00~21:30상기 제1항로~제4항로 운항항로 테즈락 센트럴베이 크루즈 누리마루호 부지기 관광이객선으로 운항항로는 다음과 같다.

1월말까지 승선고객 대상으로 마티즈 승용차를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추첨일은 내년 2월 중순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주간	제1항로	수시운항	터미널 - 오륙도 - 광안리 - 용호동
	제2항로		터미널 - 태종대 - 몰운대 - 생도 - 오륙도 - 광안리 - 용호동
	제3항로		터미널 - 태종대 - 오륙도 - 광안리 - 용호동
	제4항로		터미널 - 오륙도 - 용호동 - 해운대 - 광안리 - 용호동
야간	제1항로~제4항로	19:00~21:31	상기 제1항로 ~ 제4항로 운항항로

[주]테즈락 센트럴 베이 크루즈 www.tezroc-busan.com 1688-7680

질 좋은 숯불갈비를 국제여객터미널 3층 伽倻會館에서 만나보세요!

「부산독락」 애독자에 한해 음료수 서비스 (기한없음)



숯불갈비,
불고기 등 풍부한 메뉴,
직접 담근 맛있는 김치



돌솥비빔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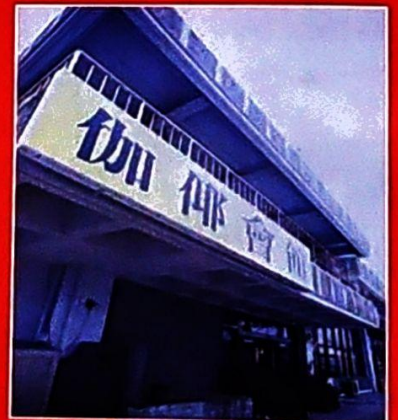
숯불원적외선으로 구운
양질의 소고기



인기일품인
물냉면 · 비빔냉면

갈비 15,000원 / 불고기 14,000원 / 냉면 6,000원

伽倻會館



TEL. 051)463-3277

도시철도 중앙동역 ⑩번출구 도보5분거리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15-4번지 *영업시간 11:00~22:00 휴무없음 *연회실완비

2010년 세계해양포럼개최

주제_기후변화와 해양의 도전-블루 이코노미 시대를 향하여

국토해양부와 부산시,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 (사)한국해양산업협회가 주최하는 포럼이 지난 15-17일까지 해운대 벡스코컨벤션 홀에서 개최됐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전 세계 해양 분야 권위자들이 세계해양포럼에 주목하는 이유는 신해양시대에 부응하는 시대정신을 잘 제시해 왔기 때문일 것"이라며 "세계 해양계의 긴밀한 협력 방안과 함께 인류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비전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석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여수엑스포를 해양을 통한 인류의 발전과 번영의 비전을 제시하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다"며 "세계해양포럼 참석자 모두가 엑스포의 든든한 후원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기후변화는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하며 "기후변화 문제는 전인류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이므로 다같이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개막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해 박인섭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이 환영사를 대신 읽었다.

개막식에서는 세계해양포럼 공동의장인 빌리어나 시신생 미국 델라웨어대 맵슨센터 소장이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변화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대니 필립 솔로몬제도 수상이 특별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 모색을 강조했다. 세계해양포럼은 3일간에 걸쳐 모두 8개의 세션과 6개의 특별세션을 펼치고 17일 막을 내렸다.

이민지 객원기자

부산시티투어

도심순환코스

“부산의 옛정취와 쇼핑의 즐거움을
느낄수 있는 도심순환 코스”



골드테마거리

범천동에 위치한 골드테마거리는 부산의 대표적인 귀금속 상가거리다. 주변에는 백화점과 중앙시장, 평화시장 등 재래 시장들도 가까워 거대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매년 10월이 되면 귀금속 상가 거리 축제가 열린다. 귀금속 세일, 경품 행사와 함께 보석, 시계류 무료 감별 및 세일 행사가 벌어져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좌천동가구거리

1950년대부터 형성된 부산시내 가구점의 발상지 좌천동 가구거리! 각양각색의 자개가 박힌 이곳의 가구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광 상품으로 사랑받고 있음은 물론, 드라마 <천만번 사랑해>, <겨울새> 등의 촬영 소품으로 활용될 만큼 국내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서면

부산에서 가장 변화한 도시 서면! 다양한 쇼핑공간이 있어 자유롭게 쇼핑을 즐길 수 있으며, 값싸고 푸짐한 먹자골목에서부터 분위기 있는 고급 레스토랑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재래시장이 인근에 있어 품질 좋은 생필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광복로

오랫동안 부산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의 중심지로 사랑받아온 광복로! 현재 광복로는 패션 1번가로 불리는데, 1백여 개의 패션매장은 물론 다양한 액세서리와 귀금속 등 다양한 유행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어 젊은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자갈치시장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부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관광명소 자갈치 시장! 넉넉한 인심의 자갈치 아지매는 물론,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생선회까지! 부산의 활기찬 매력이 살아 숨쉬는 어패류 종합시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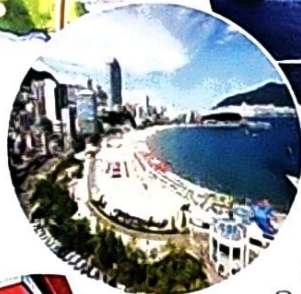
해운대 · 태종대 야경코스



“시티투어버스로 돌아보는 부산”
다양한 멀티미디어 관광정보와 함께
부산관광은 시티투어버스로 시작하세요!

태종대

수려한 해안절경을 자랑하는 환상적인 OCEAN VIEW! 영도해안을 따라 9.1km의 최남단에 자리잡고 있는 태종대는 암벽 난간에 위치한 부산 제일의 전망대와 등대를 통해 아름다운 바다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천혜의 관광지이다.



송도해수욕장

부산에서 제일먼저(1913년) 개장한 해수욕장이다. 예부터 잔잔한 파도와 맑은 수심, 상아빛 모래밭이 유난히 빛나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렸던 곳이다. 2000년부터 5년여 간 정비사업을 펼쳐 줄어드는 백사장을 확장하고 분수대 등을 설치하면서 해변공원이 되었다.



PIFF광장

부산국제영화제의 상징적인 장소이자 '친구',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등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 PIFF광장은 남포동 극장가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데, 광장 중심에 새겨진 국내외 유명 영화인들의 핸드 프린팅은 영화의 메카 PIFF광장의 빼놓을 수 없는 명물! 부산국제영화제 개봉관이 밀집해 있어 매년 가을이 되면 영화제의 열기를 가장 뜨겁게 느낄 수 있다.



누리마루

세계의 정상들이 만난 세상의 꼭대기라는 의미를 지닌 APEC누리마루 하우스! 2005년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던 기념비적인 장소라는 의미 이외에도, 동백섬의 울창한 송림과 해운대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주변 경관 때문에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는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하는 기념관 및 국제회의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해운대해수욕장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고급호텔, 음식점들이 밀집된 한국 최고의 휴양지이다. 1km가 넘는 긴 해안가에는 바다축제를 비롯한 연중 다채로운 문화 축제가 열린다.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PARADISE HOTEL
BUSAN

내나라 2박 패키지 “천년 고도 경주와 부산 해운대를 함께”

파라다이스호텔 부산과 경주 힐트호텔은 경주와 부산에서 각각 1박할 수 있는 연계 패키지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오는 12월 30일까지 이용 가능한 '내나라 2박 패키지'는 디럭스 룸 기준으로 파라다이스호텔 부산과 경주 힐트 호텔에서의 각각 1박과 2인 조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행 후 여독을 풀 수 있도록 해운대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노천온천 무료 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부산 아쿠아리움 20% 할인, 광안대교를 돌아 오는 티파니 21 크루즈 15% 할인, 신라 밀레니엄 파크 20% 할인, 화귀동물 체험관 30% 할인, 경주월드 자유권 3,000원 할인,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할인권 제공 등 부산과 경주 인근 관광 명소에서의 다양한 할인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두 호텔 모두 주중(일~목)을 이용하여 2박을 할 경우 340,000원이며 주중 1박, 주말 1박을 각각 이용할 경우 380,000원~385,000원이며 두 호텔 모두 주말(금, 토) 2박 시에는 425,000원이다. 경주 힐트호텔은 디럭스룸 호수 전망 기준이며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의 경우 디럭스 룸 도심 측 기준인데, 발코니가 구비된 해변 정면 객실을 선택할 경우 추가요금이 더해진다.



☎ 문의 및 예약 (051)749-2111

부산롯데호텔 겨울 패키지



My Favorite Winter Package

감동적인 선택, 따뜻한 겨울을 만들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부산롯데호텔 겨울 패키지 [My Favorite Winter Package]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패키지의 큰 타이틀 [My Favorite Winter Package]에는 그 고민의 결과가 고스란히 묻어났다.

[My Favorite Winter Package]를 자세히 보면, 아모스 헤어 리페어 세트 또는 호텔 바스 타올(핑크 또는 화이트), 사해 목욕 소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해피 초이스(Happy Choice) 패키지와 달콤하고 따뜻한 숙면을 위해 호텔 거위털 베개(2개) 또는 마이필 베개(2개)와 함께 하는 스위트 드림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

해피초이스 패키지는 18만원, 스위트 드림 패키지는 28만원(스탠더드 객실, 주중(일~목)기준)이다. 금요일은 패키지 가격에 3만원, 토요일은 패키지 가격에 5만원이 추가되며 크리스마스기간(12/24~25)과 연말 연시(12/31~1/1)에는 8만원이 추가되며 특별 와인 세트가 제공된다. 롯데, 현대, BC 카드 이용 고객은 5% 할인 혜택도 추가로 주어지며, 거가대교 개통을 기념하여 거제지역 이용 고객에게는 부산시티투어 티켓 2매가 제공된다. 하이딜럭스(3만원), 클럽딜럭스(7만원) 객실로 업그레이드 시에는 추가 요금이 부가되며, 보조 침대 이용시 3만원을 추가하면 된다.



☎ 문의 및 예약 (051)810-1100

www.lottehotelbusan.com | blog.naver.com/blottehotel

부산웨스턴조선포텔

THE WESTIN
CHOSUN
BUSAN

I ♡ Westin I ♡ Green Package

부산 웨스턴조선포텔은 오는 12월 30일까지 친환경을 테마로 I ♡ Westin I ♡ Green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번 패키지는 부산 웨스턴조선포텔의 친환경 캠페인 'I ♡ Westin I ♡ Green'의 일환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동백섬 정화 및 식수를 위한 친환경 캠페인에 사용할 예정이다. 부산 웨스턴조선포텔은 동백섬 입구에 위치한 해운대 바다를 뒤로는 동백섬의 아름다운 산책로와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이에 관광명소로 사랑 받고 있는 동백섬을 정화하고 나아가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으로 'I ♡ Westin I ♡ Green' 캠페인을 2010년 1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크게 두가지 타입으로 선보이는 이번 패키지는 모든 이용 고객에게 친환경적으로 제작된 에코 백을 제공한다.

18만 5,000원~34만5,000원(세금, 봉사료 별도)으로 구성되어 객실 타입에 따라 BAC 온천사우나, 헬스장,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호텔 내 레스토랑 이용 시 요일에 따라 10~20% 할인, 호텔 내 이경민 포레 살롱 20% 할인(헤어커트, 드라이 제외)등의 혜택도 함께 주어진다. 특히 이그제큐티브 타입 이용 고객에는 9층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서의 조식과 차, 다과, 소프트 드링크를 즐길 수 있는 Happy Hour, 사우나 무료 이용 그리고 24시간 데스크톱과 무료 인터넷 이용 혜택이 제공된다.



☎ 문의 및 예약 (051)749-7001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



BUSAN
AMBASSADOR

음식과 생활도자기전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의 로비층에 위치한 뷔페 레스토랑, 씨스케이프에서는 도예가 서정욱씨의 작품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식탁과 예술의 만남'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작품전은 '음식과 생활도자기전'이라는 컨셉으로 씨스케이프의 다양한 음식을 즐기며 곳곳에 전시된도자기들을 통해 흙이 주는 따뜻함, 흙이 빚어낸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도예가 서정욱씨가 말하는 도자기는 우리 전통과 서구화된 생활 방식에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진짜 우리 그릇이라고 말한다. 이번 씨스케이프 전시를 통해 전통적인 형태의 식기와 다기들이 얼마나 현대와 잘 어우러지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씨스케이프 '음식과 생활도자기전'은 12월 5일까지
☎ 문의 및 예약 (051)746-8265

해운대 그랜드호텔

HAEUNDAE GRAND HOTEL

바(BAR) 파비앙 '맥켈란 1700 세트'

해운대그랜드호텔(대표 김만식) 1층에 위치한 바(BAR) 파비앙에서 맥켈란 1700 프레지던트 에디션을 특별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오크나무 통에서 숙성된 몰트 원액으로 만든 맥켈란 1700 프레지던트 에디션은 깊은 풍부한 과일향과 달콤한 바닐라향의 부드러운 여운이 오래 남는 제품으로 상품 구성은 맥켈란 1700 & 안주(소시지 또는 과일) & 페리에(라임 또는 레몬) 2병 구성, 정상이 320,000원에서 할인된 249,600원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세금, 봉사료 별도)

중식당 '크리스마스 & 연말 특선 코스'

3층에 위치한 중식당 만리성에서 크리스마스 & 연말 특선 코스를 선보인다.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선보이는 이번 코스의 메뉴는 A코스의 경우 게살 죽생 스프와 해삼 송이, 소류 관자, 사천식 중세우 요리, 소고기 부추 볶음과 꽃빵, 식시류, 수정만두, 계절과일이 구성되었고, 가격은 58,000원 / 세금, 봉사료 별도이다. B코스의 경우 연어 관자 냉채와 비취순채 제비집 스프, 심전대보 캐비어 통식스핀짬, 구기자 바닷가재 요리, 중식 스테이크, 식시류, 수정만두, 계절과일이 준비되었다. 가격은 68,000원 / 세금, 봉사료 별도이다. 이 코스를 주문하는 고객에겐 와인 한잔을 무료로 제공한다.



☎ 문의 파비앙 (051)740-0610
☎ 문의 중식당 「만리성」 (051)740-0631

해운대 씨클라우드호텔



Christmas Package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바닷가에서 맞이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해 부산 해운대 씨클라우드 호텔에서는 특별한 패키지를 선보인다. 올해 크리스마스에 선 보이는 크리스마스 패키지는 연인과 함께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씨클라우드 호텔 객실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다.

크리스마스 패키지에는 2인 조식과 특별한 선물을 제공한다. 객실 내에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조명이 아름다운 미니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매력적인 스페셜 와인과 다양한 종류의 치즈 및 과일이 Hamper Basket에 준비되어 제공된다. 그리고 조금 일찍 예약하기를 원하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씨클라우드 호텔에서는 Early Bird Booking을 실시하여 30일 전 예약시 패키지 요금에서 5% 할인, 15일 전 예약시 패키지 요금에서 3%를 할인해 준다.

가격은 크리스마스 패키지 300,000원(슈퍼리어 측면바다기준, 부가세 별도, 12/25일 연박시 200,000원 추가. 단, Hamper Basket과 크리스마스 트리는 투숙 기간 중 1회 제공 - 중복 제공 불가)이며, 2010년 12월 24일에서 25일 양일간 선 보인다. 이번 패키지는 수량이 한정 되어 있으므로 호텔 사정에 따라서 예약이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예약 (051)933-1000
자세한 사항은 호텔 웹사이트 www.seacloudhotel.com

코모도호텔

Commodore HOTEL
BUSAN

겨울맞이 프로모션

코모도호텔 양식당 이장군에서 겨울맞이 영양만점의 프로모션을 준비하였다.

'최상급의 소안심 스테이크와 거위간 소스 & 왕새우 칠리 감자요리와 여러가지야채'를 메인으로 유자향의 광어 카파치오, 아스파라거스 크림 스프, 살짝익힌 앙상추 위에 올린 메로구이와 머스타드 크림소스, 홍삼 사벳이 제공되어 지며 크림치즈 케익과 데코 초콜렛 커피 또는 차가 후식으로 제공되어 진다. 이번 프로모션에 사용 되어진 재료는 겨울철 원기 보강에 좋은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식당 한국관에서 추운겨울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프로모션으로 '생태탕 반상'을 준비하였다. 생태탕과 함께 즉석 영양 돌솥밥이 함께 제공되어져 몸을 후끈하게 데워준다. 생태는 몸 안에 공해독을 풀어주고 겨울철 감기와 손발이 찬사람에게도 제격이다. 추운 겨울 뜨끈한 국물이 생각날 땐 코모도호텔 한국관 한식당에서 '생태탕 반상'을 즐겨보자.

*금액 : 38,000원(양식당) *금액 : 19,000원(한식당) *상기 금액에는 세금 및 봉사료가 부과 됩니다.

☎ 양식당 이장군 문의 (051)461-9741

☎ 한식당 한국관 문의 (051)461-9747



호메르스호텔

아듀! 2010 출발! 2011 해맞이 패키지

희망의 신년 새아침을 넓은 객실에서 편안하게 한해를 설게할 수 있는 해맞이 패키지는 딜럭스 객실과 고급 와인 치즈세트 그리고 럭셔리 조식뷔페가 제공됩니다.

*해맞이패키지 기간 : 2010. 12. 31 ~ 2011. 1. 2

또한 온 가족이 찜질방에서 함께 즐기며 광안리 앞바다에서 솟아오르는 해맞이를 하고 아침 식사를 나누는 찜질방패키지를 출시 한다.

*찜질방패키지 기간 : 2010. 12. 31

☎ 문의 및 예약 (051)750-8000



호텔리베라해운대

고객을 가족처럼
호텔리베라해운대

리베라해운대 패키지

깨끗하고 안락한 객실, 넓고 쾌적한 침실,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해운대 바다와 도심의 풍경으로 고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로맨틱패키지

스탠더드 객실, 조식2인, 와인병 제공,
주중 - 100,000원, 주말(금,토) - 130,000원

★★조식패키지

스탠더드 객실, 조식2인
주중 - 95,000원, 주말(금,토) - 124,000원

*공통사항 : 체크아웃 14시까지 무료 연장 *편의시설 : 연회장, 웨딩홀, 비즈니스센터, 레스토랑

☎ 문의 및 예약 (051)740-2111



해운대 센텀호텔

Fall in Haeundae Package

기간 : 2010.09.16 ~ 11.30 (국제영화제 및 국제 행사기간 제외)

DELUXE | 140,000

- 아쿠아리움 20%할인, 티파니 크루즈 10% 할인 제공
- 사우나 헬스장 이용시 50%할인 및 체지방 무료 측정권
- 매트리스 1EA 무료제공
- 신세계백화점 VIP 영화관 씨네드쉐프 20% 할인
- 롯데백화점 식당가 10% 할인
- *주말(금/토)에는 20,000원(부가세별도)이 추가 됩니다.
- *상기 요금에 부가세 10%가 가산됩니다.
- *상기 패키지는 호텔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예약 (051)720-9000



호텔일루아

Hotelillua

대한 필경의 하나인 해운대 달맞이길에 위치한 호텔 일루아는 해변으로부터 10분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 휴식을 원하는 투숙객에게 해운대의 볼거리뿐만 아니라 한적함을 동시에 느낄수 있는 호텔입니다.

일요일 세일 프로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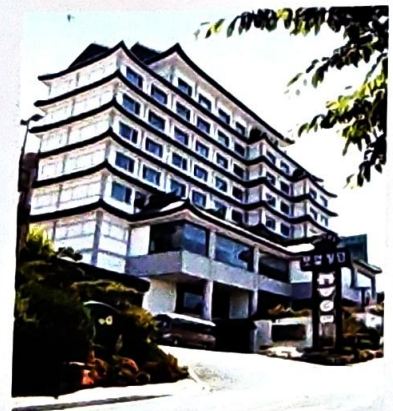
매주 일요일 호텔일루아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할인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객실이용 및 특전까지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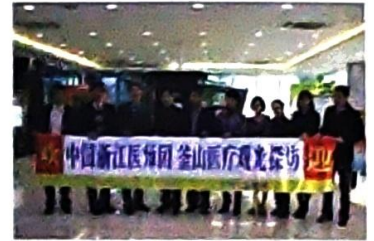
*객실가격 - 스탠다드(시티뷰) 120,000, 스탠다드(오션뷰) 140,000, 디럭스(오션뷰) 180,000

*특전사항 - 주중(일~목) 객실 50% 할인권 1매, 레스토랑(테라코) 무료 음료권 2매, 아쿠아리움 20% 할
인권 2매, 조식 2인무료, 마스크팩 2매, 객실내 화이트와인(와쏘레이디) 1병 무료제공

☎ 문의 및 예약 (051)744-1331



중국 절강성 이우시 의료관광 팸투어단 부산시 방문



중국 절강성 이우시에서 의료관광 팸투어단이 부산 의료관광 정보센터의 초청으로 지난 10일 부산시를 방문했다.

이우시의 장소홍 미용병원 계건시 병원장을 비롯한 이우 병원협회 관계자 6명과 이우시 방송국 촬영팀은 부산 의료관광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4박 5일의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했다. 의료관광 팸투어는 부산시의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의료관광 전문병원을 둘러보고, 부산시의 의료관광을 이우시와 이우의 의료관계자에게 소개하기 위해 방문케 됐다고 한다.

일정중 본 의료관광 정보센터를 방문하여 부산 의료관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센터의 U-healthcare 체험을 하며 한국의 의료수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금번 이우 의료관계자 일행은 부산의료관광정보센터와 함께 해운대 백병원, 노블레스 성형외과, 밝은눈안과 등의 의료기관을 탐방하고, 누리마루를 관광하는 등 부산의 의료와 관광자원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자료_부산의료관광정보센터 T. 051-510-4962

부산의료관광정보센터

부산의료관광정보센터(BMTIC)는 부산시와 대동대학이 부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소한 의료관광종합지원센터다.

부산의료관광정보센터는 의료관광객 유치에 위한 공동 마케팅, 해외 자매결연,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0 부산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사업자로 지정받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부산의료관광정보센터는 의료관광객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해외환자의 유치, 병원안내, 관광, 진료 후 귀국 및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을 서비스하고 있다. 부산의료관광정보센터는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에 소재하며 영상관, 의료관광 체험실, 종합지원실, 교육장등이 구성되어 있다.

현재 대동대학은 싱가포르 파크웨이 대학과의 협력으로 의료관광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38명의 학생들이 해외공동학점연수과정으로 싱가포르에서 연수중이다.



부산의료관광정보센터 개소식 (2009. 12. 10)

대한항공 소식

대한항공은 8월부터 주6회 규모로 복항한 부산~홍콩 노선 정기편을 지난 10월 31일부터 주1회 증편하여 매일 운항 중이다. 아울러 10월 31일부터 부산~씨엠립 노선은 주2회(화토)에서 주4회(월화목토)로 주2회 증편되었으며, 부산~마닐라 노선은 12월 18일부터 주2회(목일)에서 주4회(화목금일)로 주2회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부산~삿포로 노선은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 출발로 변경되었으며, 부산~북경 노선의 경우 오후 출발편을 없애고 오전 7시~8시대로 매일 운항 중이다.



찬란한 여행 부산 하늘길을 위하여

부산의 선박회사 임원K씨는 중동을 가기 위하여 새벽0시50분 인천공항발 비행기 탑승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항공, 도시철도 등을 이용하여 밤10시까지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 겨우 도착하여 탑승수속을 밟아 떠날 수 있었다. 또한 외국관광객들이 부산을 관광하기 위해 미주, 아시아, 유럽등지에서 밤11시이후 오전 6시 사이 부산으로 들어오려는 비행편은 오로지 인천공항으로 가야만 한다.

그중에서도 유럽, 대양주, 미주발 부산행은 아예 비행편이 없다. 참으로 난감한 사실이 매일 꼭 벌어지고 있어도 왜 그런지 아는 사람이 드물며 관광부산을 외치는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즉 부산김해국제공항은 문 열고 닫는 시간을 정해놓은 반쪽짜리 공항인 셈이다.

부산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는 해외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한 24시간 개방공항이 첫 번째다. 그래서 가덕 신공항은 어떤 이유도 필요없는 절대 절명의 과제이다. 모쪼록 우리나라의 제2도시 관문 및 우리나라 제2허브공항 건설은 주저할 수 없다.

(주)찬란한여행 대표이사 정 영 수 (jys00@paran.com)



용두산 공원 부산타워 '한국의 미' 사진전

용두산공원 부산타워(대표 강석환)에서는 부산원도심문화네트워크 후원으로 대만 외교관 로이타옌(Roger Luo)이 3년여 동안 한국의 여러 지역을 탐방하여 찍은 풍경사진들을 모아 '한국의 미' 사진전을 개최한다.

지난 19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부산타워 2층 특별전시실에서 약 한달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사진 약 40여점이 전시돼 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직접 카메라에 담아 전시되는 이번 사진전은 우리나라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을 재조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051-245-1066



부산아쿠아리움, 제1회 꼬마산타 캐롤송 콘테스트 개최

모여라! 꼬마산타친구들아~!

부산아쿠아리움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제1회 꼬마산타 캐롤송 콘테스트" 를 개최한다.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춤과 노래, 혹은 자기만의 장기를 펼쳐볼 수 있는 콘테스트로 어린이들의 끼와 재능을 맘껏 펼쳐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선사한다는 의미에서 마련되었다. 총 상금 100만원 상당과 방송출연의 기회까지 주어진다.

3~7세 어린이로 5명 이하의 개인이나 팀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12월 1일 예선을 거쳐 15일 본선이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상금은 물론 베스트드레서상의 의류상품권, 아차상의 패밀리레스토랑식사권 등의 특별상품들이 있으며 특히 본선 진출자 에게는 방송출연의 기회도 제공된다.

제1회 꼬마산타 캐롤송 콘테스트 개요

타 이 틀 : CJ헬로비전, 부산아쿠아리움이 함께하는 제1회 꼬마산타 캐롤송 콘테스트

공동주최 : CJ헬로비전, 부산아쿠아리움

대 상 : 3~7세 어린이로 5명 이하의 개인이나 팀으로 구성

참가부문 : 노래, 춤, 장기자랑 등

시상내역 : 대상 상금 50만원 등 푸짐한 상금, 상품이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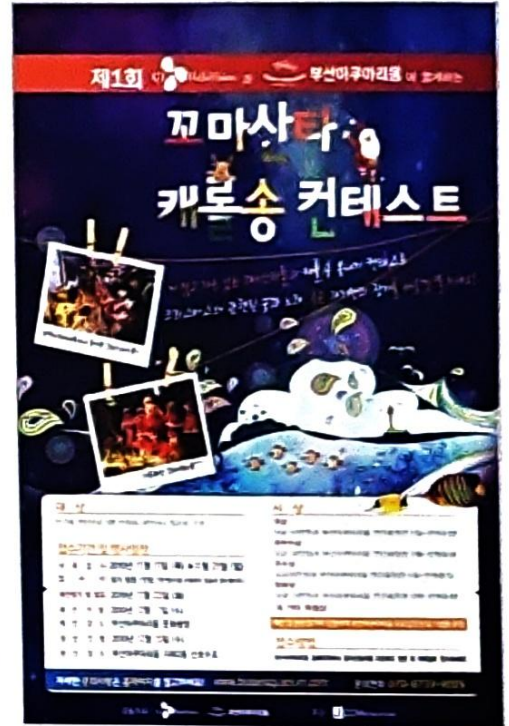
접수기간 및 행사일정

*예선진행 : 2010년 12월 1일 (수)

*본선진행 : 2010년 12월 15일 (수)

*예선장소 : 부산아쿠아리움 문화광장

*본선장소 : 부산아쿠아리움 지하2층 산호수조



*문의 051-740-1700
www.busanaquarium.com

회동수원지 '누리길' 만든다

부산 금정구 회동수원지에 친환경산책탐방로 '누리길'이 조성된다.

친환경 산책 탐방로인 회동수원지 누리길은 도시철도 남산동역~회동수원지 간 2km 구간으로, 현재는 차도만 있어 산책을 하려면 사람이 차도를 걸어 다닐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 구간이 '누리길'로 선정됨으로써 공사비 4억500만 원, 토지보상비 7억700만 원 등 11억1200만 원을 지원받아 내년 3월까지 보행자도로가 만들어진다. 현재 폭 6m, 2차로인 이 도로에는 추가로 폭 2m의 인도가 만들어진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회동수원지 강변로(5.9km)를 완공했으나 주민들이 강변로까지 가려면 자가용이나 마을버스를 타고 오륜대 등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주차문제도 발생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철도역에서 걸어서 강변로까지 갈 수 있는 회동수원지 누리길 조성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금정구청은 이달 중 설계에 들어가 내년 3월 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제1회 부산항 '빛축제' 개최

중구·서구·영도구 등 3구 연합, 내달 1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겨울철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산항 빛축제가 열린다. 부산항 빛축제 조직위원회는 내달 18일부터 1월 9일까지 23일간 부산남항 앞바다 및 부산 중구·서구·영도구 일대에서 '제1회 부산항 빛축제'를 개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원도심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부산 중구, 서구, 영도구 등 3개구가 공동 추진하는 연합축제다. 행사일인 18일 오후 7시로 예정된 개막식을 위해 자갈치시장 수변공원에는 특설무대를 설치하고 워터스크린과 안개분수, 불꽃쇼 등이 진행되고 부산남항을 배경으로 환상적인 빛 멀티미디어아트쇼가 펼쳐진다. 부산항 빛축제의 관람포인트는 부산시 서구 소재의 천마산, 영도구의 봉래산, 중구 용두산을 잇는 거대한 삼각레이저쇼와 남항대교 아래로 쏟아지는 서치라이트의 빛연출이라고 조직위는 강조했다. 이 쇼들은 평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주말에는 자정까지 30분 간격으로 5분간 감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구에는 용두산타워 빛아트쇼, 자갈치시장 일대 파빌리온 15점과 시민공모전 수상작 전시, 하늘조명 등이 마련된다. 또 서구는 송도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국내외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빛 대표작 8점 및 시민공모전 수상작 18점이 전시되며, 영도구에서는 국내외 미디어아트 작가 작품 전시 및 시민공모전 수상 전시 이외에 빛 조명거리가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3개 구청에서는 축제 기간 동안 '인터랙티브아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이 직접 빛을 이용한 창작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조명환 조직위원장은 "해당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는 봄 기장멸치축제, 여름 부산바다축제, 가을 부산국제영화제 등이 유명하지만, 유독 겨울철 문화관광 콘텐츠가 없어 이번 '부산항 빛축제'는 부산의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과목 / 특수 클리닉

- 정형외과
- 내과
- 외과
- 마취통증의학과
- 재활의학과
- 영상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 인공신장센터
- 종합검진센터
- 물리치료센터
- 미세수술 클리닉
- 인공관절 클리닉
- 관절내시경 및 레이저 클리닉
- 소아 및 체격교정 클리닉
- 척추 및 요통 클리닉
- 류마티스 관절 클리닉
- 통증 클리닉
- 대장, 항문 클리닉
- 뷰티랩(피부관리실)

www.jointspine.com

 보건복지부 지정

정형외과 전문병원 / 해외환자유치 등록병원

강동병원

병원장_강신혁 | 행정원장_조현숙
의무원장_김종진 | 의무부원장_김영환 | 진료부장_김성목

24시간 응급실 진료

러시아의료관광

시장개척의 선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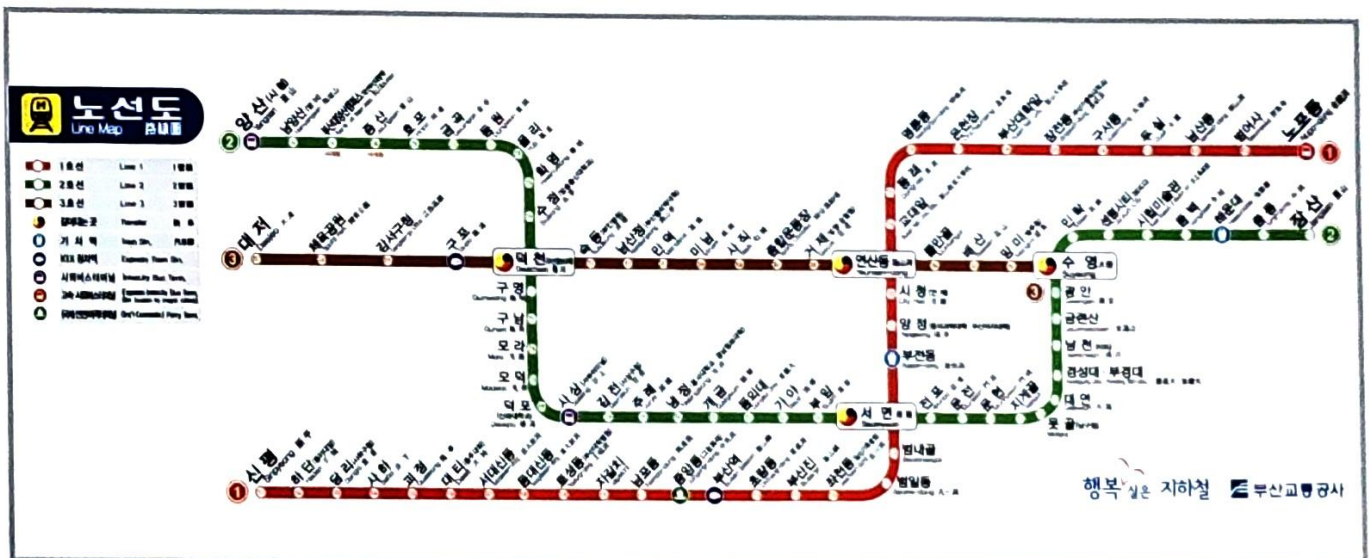
 강동병원
GANG-DONG HOSPITAL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69번지
TEL : (051) 209-1100(24H)
FAX : (051) 201-3865

<부산관광안내전도>



<부산도시철도 노선도>



우리에게 서점이란 무엇인가



4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부산에 대형서점 두 곳이 문을 달았다. 뭔가 소중한 것이 가뭇없이 사라져 가는 쓸쓸함이 밀려왔다. P.C 앞에서 식지하나만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순식간에 찾아낼 수 있고 손바닥 안에 온 세상의 지식을 들고 다니며 온라인으로 원하는 책들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현대에서 서점이란 우리에게 어떤 공간이었을까 문득 되짚어 본다. 정보가 포장되고 전달되는 방법이 변하고 있는 낯선 길목에서 미처 진화되지 못한 시장의 퇴물로 주저앉았다고 치부하기엔 뭔가 아쉽고 서운함이 저러 오기 때문이리라.

서점은 오랫동안 독자들이 일상아 시간을 만들어 각자의 취향과 수준에 맞는 읽을거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발품의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이었으므로 백화점이나 수퍼마켓에 진열된 여느 상품과는 달리 이책 저책을 뒤져 훑어보기도 하고 필요할 땐 간단한 메모도 하면서 꽤 오랜 시간을 머무르는 번잡한 도심 속에서 몇 안 되는 느낌의 문화 공간이었다. 다양한 책들이 빼곡히 진열된 서점에 발을 들이면 우선 그 엄청난 양의 책속에서 내가 읽었음직한 책이 과연 몇 권이나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내 알량한 독서량에 이내 주눅이 든다. 은근한 깨우침이 예매고 또 어디 있으랴 싶다.

멋진 정장을 하고 수북이 쌓인 책들이 한줌도 안 된 나의 독서

량에 허를 날름거리며 빈정거리고 있는 것 같아 남세스럽고 책속의 이해와 내 무지 사이의 간극은 오기로 들이밀 수 없는 엄정함이어서 더 무참하다. 더욱이 생소한 작가들, 다양한 소재의 책들을 보고 있으면 글쓰이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변해가는 세상의 모습들이 너무나 또렷하고 실감이 나서 놓아버린 꿈을 다시 꿰고 싶어 선지 가슴에 슬며시 불이 땡겨온다. 늦은 나이가 무색하다. 또한 서점 안에는 세상을 시끄럽게 하기도 하고 공감을 주기도 하는 온갖 말들이 갈피 마다 문자로 가라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공간이므로 책을 찾고 있는 고객의 모습들이 진지하고 점잖아서 평화롭고 아름답기가 그지없는 공간이기도 하다.

오랜만에 서점에 들러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저자가 친숙감이 있는 두툼한 "공감의 시대"란 책을 집어 든다. 8백 페이지나 되는 두꺼운 책을 언제 다 읽어 낼 것인가 아득해져 이내 내려놓고 만다. 이번엔 하버드 대학의 어느 철학교수의 강의록을 옮겼다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훑어본다. 공정사회가 화두로 떠오른 세태의 반영인가? 50만부나 팔렸단다. 호기심으로 앞부분 몇 페이지를 선 채로 읽어본다. 강의록이어서 그런지 다양한 실화들을 인용해 자칫 현학에 빠져 허우적거릴 묵직한 개념들이 선명한 색깔로 다가와서 흥미롭지만 이내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에 더 이상 매달려 있을 나



이 평 규
본지 편집위원



“ 서점은 오랫동안 독자들이 일상
아 시간을 만들어 각자의 취향과 수준에
맞는 읽을거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발품의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이었으므로 백화점
이나 수퍼마켓에 진열된 여느 상품과는
달리 이책 저책을 뒤져 훑어보기도 하고
필요할 땐 간단한 메모도 하면서 꽤 오랜
시간을 머무르는 번잡한 도심 속에서 몇
안 되는 느낌의 문화 공간 이었다. ”

이가 아니라 핑계로 제자리에 내려놓는다. 애 좌판 가까이에 얼마
전에 읽었던 “욕망의 경제학”이란 책이 빙그레 나를 반긴다. 자리
를 옮겨 소설이나 수필, 시집이 있는 쪽으로 기웃거리려본다. 이번엔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신작이 나왔느냐고 매장 직원에게 물어본다.

이렇듯 서점에 들르면 늘 지적욕심이 활개를 치고 나이답잖게
열정이 비집고 나오곤 해서 좋다. 읽고 싶은 책은 너무 많고 읽을
시간은 왜 그리 빠듯한지 문득 내 하루의 독서시간을 가늠해본다.
언제부터가 내 일상에서 책 읽는 시간이 빠져 있음을 알고 이내
숙연해진다. 나도 모르게 필요한 정보를 식지로 자판기를 두드려
찾아내는 다이제스트화된 삶에 젖어 있었나보다. 덩달아 세속에
끌려 디지털 문화에 젖어든 내 모습이 오늘따라 남루하고 각박
해 보인다.

한참을 한가로이 시간의 무늬가 알싸한 갈색 책 향기에 젖어있
는 아늑한 서점 안을 이리저리 즐겁게 훑고 다니다가 에세이 한권
을 사들고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보니 서점은 서점을 찾는 이들에
게 뭔가 있고 지내던 소중한 것들을 내보이며 미망을 깨우쳐 주는
곳이란 생각이 든다. 모자람을 일깨워 겸손함을 찾아주고 게으름을
책하며 오류와 아집으로 아무 곳이나 내뒀던 무지함을 다독여주고
시간에 쫓기던 세속에서 여유와 풍요로움을 선사하며 꿈과 희망을

나누어 주는 지혜의 품을 어찌 온라인 서점이 어깨를 견주라 싶다.
그저 거대한 존재하는 곳일 뿐이려니 너그러움이나 깨우침이 있을
리 없다.

생각이 여기에 머물자 얼마 전 인사동거리에 골동품 가게와 고
서점이 줄어들면서 커피점과 화장품점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서
고 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읽은 기억이 겹쳐 온다. 세속의 논리에
어쩔 수 없으리라는 짐작이 서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에 닿아있
어 그 몽매함이 아만스럽기까지 하다.

공공기관의 건물들에 시민을 위해 할애할 만한 공간이 있다면
임대료를 낮추어서라도 대형서점을 유치하여 관공서의 문턱을 낮
추면서 시민들의 꿈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었음 하는 마음 절실하다. 뜻있는 분들이 나서서 소리 없이 허물
어져 가는 창연한 문화공간을 회복시키는데 힘을 모은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어찌 고마운 동행이 아닐 것인가?

독서를 통해 교양을 쌓고 세련된 언어감각으로 현대사회에서 점
점 좁아져 가는, 그래서 더 절박한 소통의 길을 넓혀나가야 하는
인간성회복의 길은 별개로 치더라도 서점이 사라지는 것과 책을
읽는데 써야할 촛불이 길거리를 헤매는 게 반비례나 하지는 않는
지 잠시 허튼 생각에 젖어본다.



여 호 군
동의대학교
호텔컨벤션경영학과 부교수

승학산 억새밭은 슬로 보행의 보금자리이다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 해발 195m의 바위산에 중세 시대를 연상하게 하는 오르비에토(Orvieto)가 있다. 이곳은 인구 5천명의 소도시에 불과한데, 이미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슬로시티(Slow City)의 발상지이다. 이곳 오르비에토의 중심에는 도오모 대성당과 광장이 있는데, 주변의 위성도시를 포함하여 인구는 2만여 명에 불과한 곳인데, 이곳을 방문하고 있는 관광객은 연간 2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적은 소도시에 엄청난 규모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이유는 국제 슬로시티(Slow City) 운동의 본고장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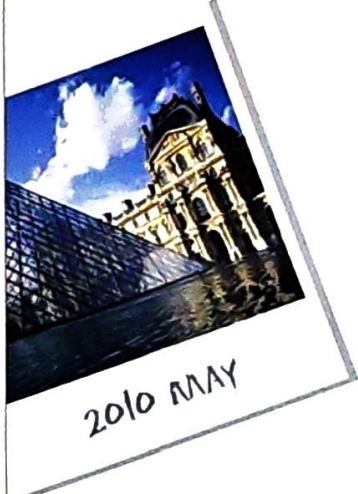
슬로시티는 이탈리아어로 치타슬로(Cittaslow)라고 하는데, 이 운동의 시초는 슬로푸드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1986년에 맥도날드가 로마 한복판에까지 진출하자, 이탈리아의 북부도시 브라를 중심으로 패스트푸드에 맞서 그곳에서 생산한 재료를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전통음식을 만들면서 대항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슬로푸드 철학은 삶과 문화전반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고, 그레베 시장인 사투르니니의 제안에 오르비에토와 브라, 포지타노 시장이 슬로푸드 철학에 호응하여 마침내 첫 출발을 하게 된다. 1989년 패스트푸드점 개설금지법을 공포하는 등 슬로푸드에 적극 동참해온 오르비에토는 국제슬로시티연맹 본부를 유치해 이 운동의 중심에 서게 된다. 또한 오르비에토는 '좋은 음식과 건강한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 공동체의 전통 위에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도시'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도심지로의 외부인 차량진입 통제, 패스트푸드점의 영업허가 금지 등과 같은 슬로시티 철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무엇보다 슬로푸드, 슬로시티, 슬로보행 등과 같이 느낌 속에서 삶의 여유와 행복을 찾고자 하는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주도에 올레길 탐방객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리산에는 둘레 길의 걸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함과 동시에 생활 속의 느슨함과 각박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서 한적하고 고즈넉한 여유를 누리하고자 하는 둘레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의 섭리를 느끼고, 삶을 되돌아보려는 도보 관광객의 증가는 도심환경보다는 자연환경을, 빠름보다는 느림을, 패스트푸드보다는 전통음식을 선호하는 형태로 사람들의 관광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 슬로시티 운동본부가 있는 이탈리아의 중부 움브리아주에 위치하고 있는 오르비에토가 추구하는 정신이 우리나라의 도보 여행길에서도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다. 바로 그것이 느림의 미학이고,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의 실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매년 가을 무렵이면 승학산 정상에는 억새가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억새군락은 물론 억새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은 과히 장관을 이루고 있다. 도심을 떠나서 먼 곳까지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연의 아름다움과 슬로 보행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승학산 정상 평원 가득히 펼쳐지고 있는 억새군락지이다. 바로 이곳이 슬로 보행꾼들과 특이 체험 관광객들에게는 부산이 숨겨놓은 '오르비에토'이다.

이제 우리는 슬로 보행꾼들이 부담 없이 방문하여 승학산 정상의 억새꽃을 감상하고, 탁 트인 풍광을 즐길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콘텐츠와 스토리를 자연과 조화되게 개발하여 우리들만의 슬로 보행의 참맛을 느끼도록 하자.

여행사 보증을 여행공제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제지급보증

항공, 철도, 여행도매업자, 선박 등과의 주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채무를 이행보증합니다.

공제영업보증

영업보증에 가입하지 않고 여행업을 운영하면 법령에 의거 등록이 취소됩니다.

공제계약보증

여행계약에서 정한 계약사항을 이행보증합니다.

공제회 협력업체

여행도매업자 |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현대드림투어, 세종투어몰여행, 롯데관광개발, 오케이케쉬백서비스(주)투어비스, 레드캡투어, 맥여행사, 자유투어, 노랑풍선, 한진관광, 롯데제이티비, 투어이천, 포커스투어, 하나유스, 걸리버트래블어소시에이트, 신한투어, 여행사닷컴 등

항 공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철 도 | 한국철도공사

선 박 | 큐슈여객철도, 대아여행사, 한일고속, 대아고속해운, 씨월드고속훼미리, 한국고속해운, 크루즈홀리데이코리아 등

금강산·개성 | 현대아산

공제회는 여행사 전담 보증기관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보증서를 발급해드립니다.



KATA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서울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대표전화 02-757-7491 | 팩스 02-757-7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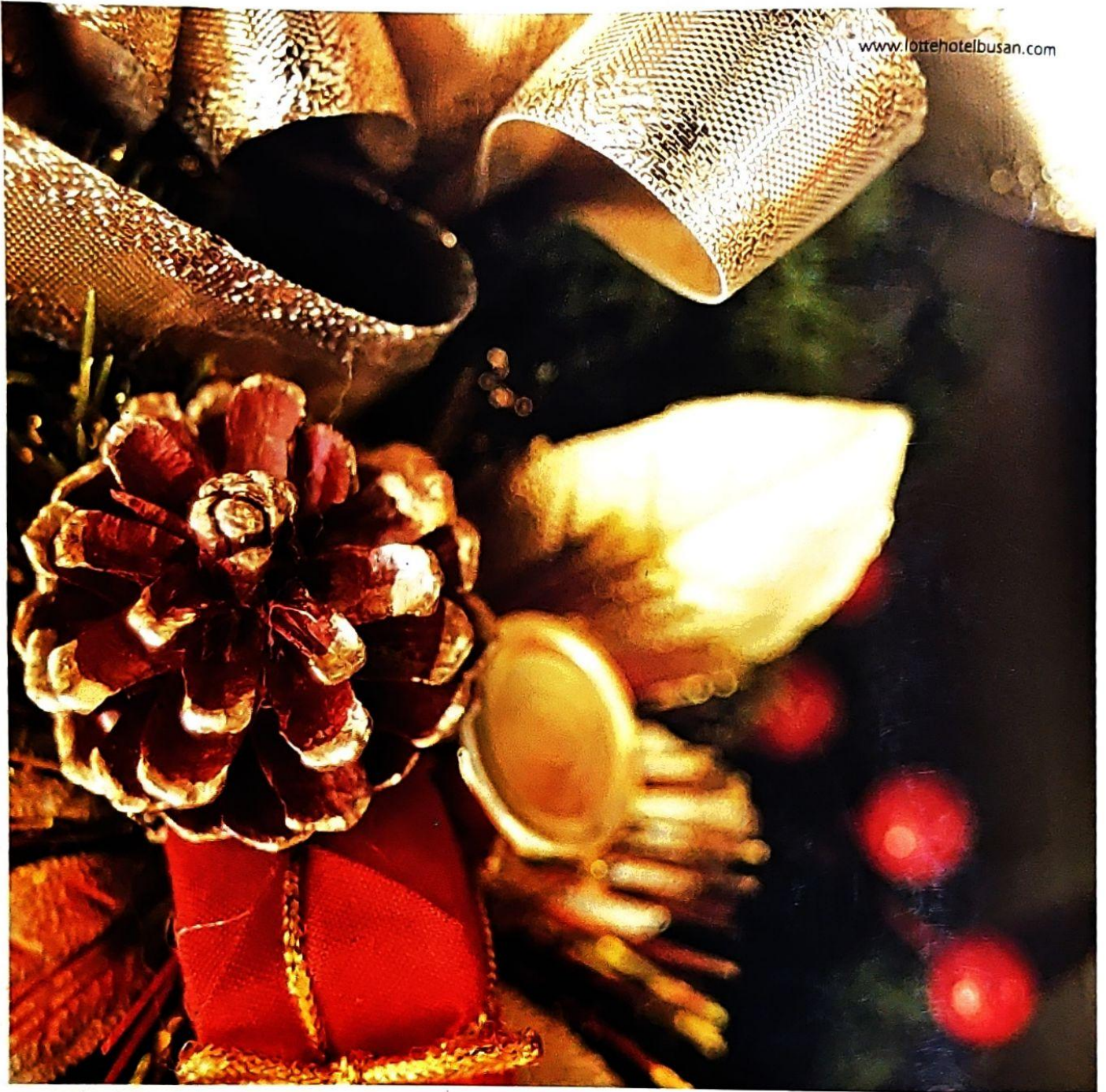
KATA 02-752-8692

서울 02-757-7482
 대구 053-746-6407
 광주 062-224-4486
 울산 052-275-2412

강원 033-242-0089
 충남 042-254-5465
 전남 061-285-0833
 경남 055-212-1345-6

부산 051-463-3111
 인천 032-432-4590
 대전 042-226-8413
 경기 031-255-8424

충북 043-231-5563
 전북 063-287-6292
 경북 054-745-0750
 제주 064-742-8861



부산롯데호텔 My Favorite Winter Package

2010. 12. 1 ~ 2011. 2. 28

Happy Choice 스탠다드룸 + AMOS 헤어 Repair Set 또는 호텔 타올 또는 사해 Bath Salt 2종 ₩180,000 (일~목)

Sweet Dream 스탠다드룸 + 호텔 거위털 베개 (2개) 또는 마이필 베개 (2개) ₩270,000 (일~목)

가격안내

- 금요일 3만원, 토요일 5만원 추가
- 크리스마스(12. 24 ~ 25)와 연말연시(12. 31 ~ 1. 1)에는 특별요금이 적용됩니다. (유선예약)
- 거가 대교 개통을 기념하여, 거제 · 통영지역 거주자께는 시티투어 티켓 2매가 제공됩니다.
- 객실업그레이드 - 하이딜릭스 객실 ₩30,000 추가 / 클럽딜릭스 객실 ₩70,000 추가

공통특전

- 조식 25% 할인
- 보조침대 : ₩30,000원 추가
- 피트니스 센터 무료 이용(헬스, 사우나, 수영장)
- 스페셜 쿠폰북 제공

· 삼기요금에 세금, 봉사료가 별도 부가됩니다.
 · 본 패키지는 내국인 및 국내 거주증 소지 외국인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패키지는 1박 2인 기준입니다.

예약 및 문의 : 부산 진구 부전동 503-15번지 부산롯데호텔 부산 (051) 810-1100 / 서울 (02)759-7060 / 수신자부담 080-551-1000